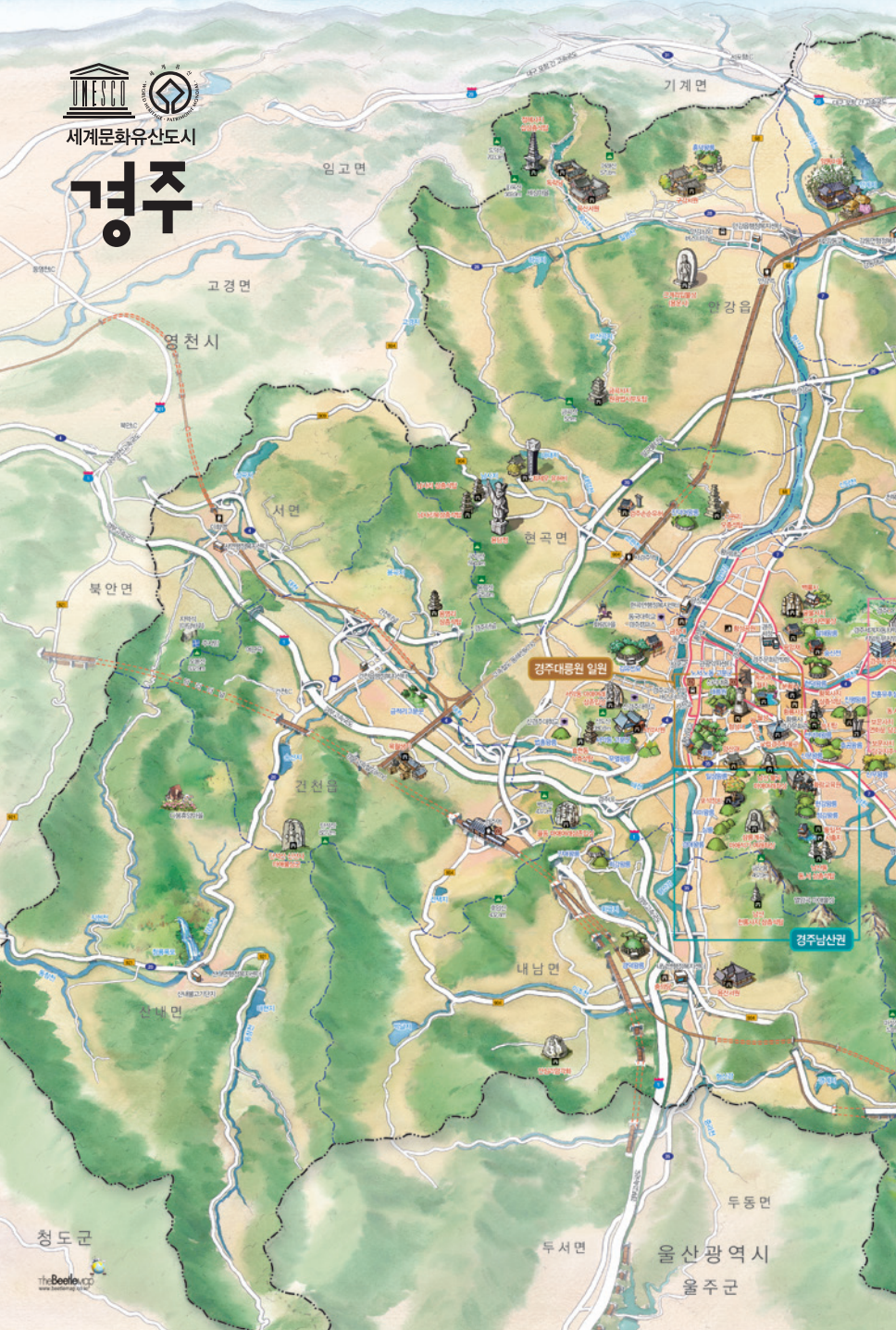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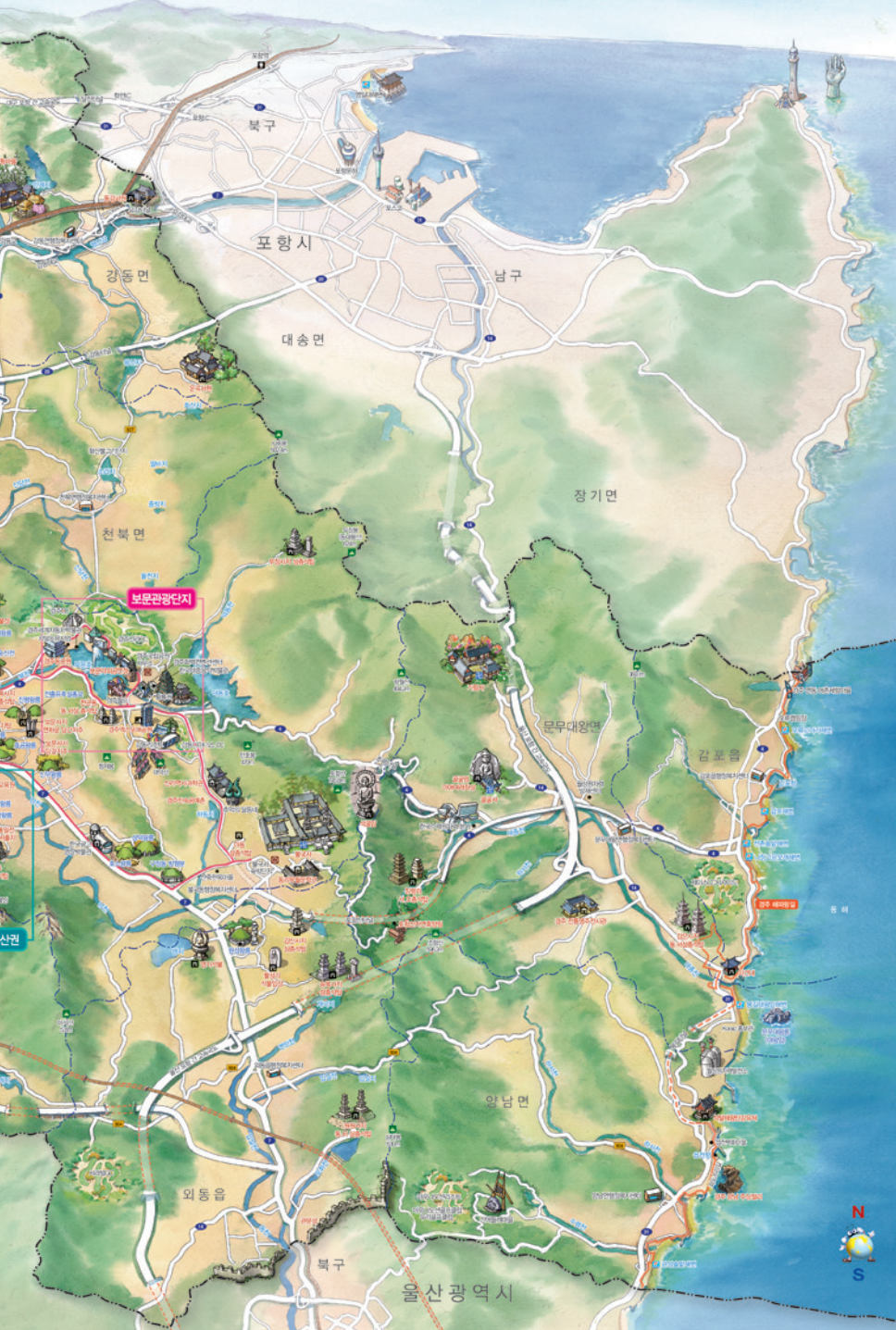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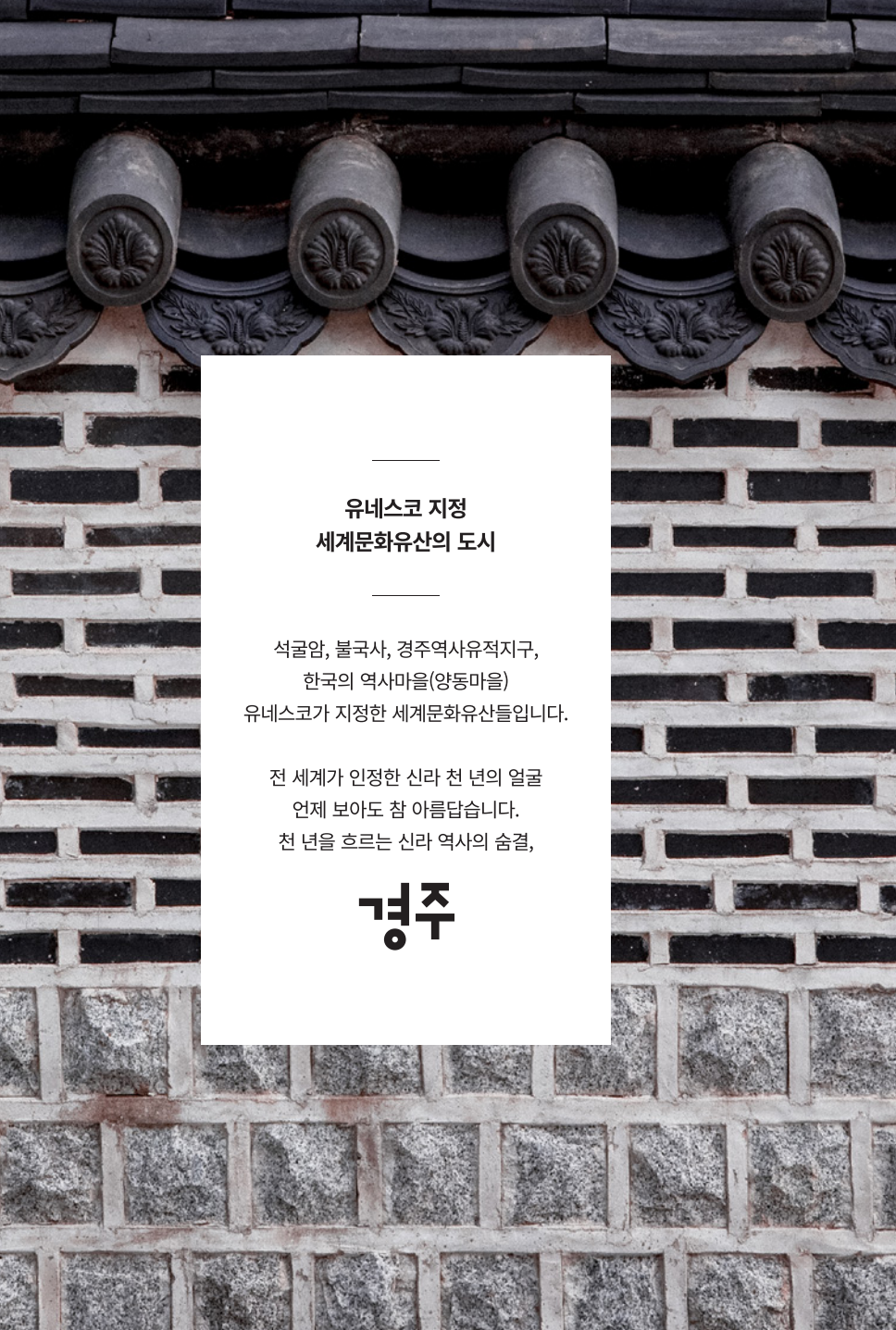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도시
경주
기계면
임고면
고경면
영천시
강읍
서면
현곡면
북안면
경주대릉원 일원
건천읍
경주남산권
내남면
산내면
청도군
두동면
두서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구
포항시
남구
강동면
대송면
장기면
천북면
보문관광단지
문무대왕면
감포읍
양남면
외동읍
북구
울산광역시
N
S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양동마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들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신라 천 년의 얼굴
언제 보아도 참 아름답습니다.
천 년을 흐르는 신라 역사의 숨결,

경주

석굴암·불국사

1995년 12월 9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석굴암



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12월 2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불교미술의 보고

남산지구



동양 최대의 가람터

황룡사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

월성지구



신라의 왕경방어시설

산성지구



찬란한 신라 유물의 보고

대릉원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옥산서원



동강서원



독락당

옥산서원, 동강서원, 독락당은 양동마을의 일부로 함께 등재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옥산서원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고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92년간 신라의 서울이었던 '천년수도' 경주
예로부터 '서라벌'이라고 불려온 경주의 역사는
곧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였습니다.

불교와 과학, 신라인의 예술성이 꽃피운
가장 찬란했던 고대문화와
삼국통일의 위업을 가능케 해준 화랑도의 높은 기상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
경주는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천 년을 흐르는 신라의 숨결
여기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입니다.



CONTENTS

불국사권	08
남산권	18
시내권	32
보문관광단지권	52
서악권	62
북부권	70
동해권	78
추천 여행지 및 필수정보	86
추천 여행지	88
경주 특산물	96
축제	98
주요 안내처 & 숙박	99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100
관광지도 신청 & 스탬프투어 & 신라대종 타종체험	101
관광요금표	102
문화유산 목록	103





통일신라 문화의
정수를 느낀다

불국사권

신라의 오악(五岳 : 동악 토함산, 서악 계룡산, 남악 지리산, 북악 태백산, 중악 팔공산) 가운데 동악(東岳)에 해당하는 토함산은 예로부터 왜구의 침범을 막아준 호국(護國)의 진산(鎭山)으로 신성시되어 왔다. 토함산은 불국토(佛國土)의 이상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신라의 성산(聖山)이다.



#불국사 #석굴암 #동리목월문학관 #영지 #원성왕릉



불국사

부처님의 영원한 궁전

사적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토함산 서남쪽에 자리 잡은 불국사(佛國寺)는 불국토의 이상을 조화와 균형으로 표현한 부처님의 궁전으로, 신라인들의 과학과 미학이 이뤄낸 통일신라 문화의 정수이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의하면 751년(경덕왕 10년)에 김대성(金大城)이 현생(現生)의 부모를 위해 창건했다고 한다. 불국사는 신라의 건축기술과 불교, 토함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만들어낸 통일신라시대 사원예술의 걸작이다. ✪ 1995년 12월 9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054-746-9913 📍 불국로 385 🚌 10, 11, 12, 700



부처님이 중생을 계도하기 위해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계단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국보

총 34계단으로 이루어진 다리로 위쪽의 청운교(靑雲橋)는 16계단, 아래쪽의 백운교(白雲橋)는 18계단이다. 위쪽 좌우에는 갑석이 있으며, 그 가장자리는 가볍게 들려서 신라석탑 지붕돌의 그것과 비슷하며, 좌우로 이어진 석축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연화교(蓮華橋)는 디딤돌이 10단으로 아름다운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칠보교(七寶橋)는 7단의 계단으로 금·은·유리 등의 일곱 가지 보배를 상징한다. 위의 것이 칠보교이고 아래가 연화교이다.



불국사 대웅전 보물

대웅전은 불국사의 중심전각으로 본존불(석가모니불)을 모신 법당이다.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탑

불국사삼층석탑 석가탑 국보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한 쌍의 석탑이 있다. 이 가운데 서쪽에 있는 탑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이라 하여 석가탑(釋迦塔)이라 하며 높이는 8.2m이다. 석탑 전체에 걸쳐 별다른 기교가 없이 간결하고 우아한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대표작이다. 1966년 10월 석탑의 수리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석가탑 사리장치 등을 포함한 많은 유물이 나왔다. 아사녀가 아사달을 기다리던 영지(影池)에 끝내 탑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다 하여 '무영탑(無影塔)'이라고도 부른다.



법화경을 증명하는 탑

불국사다보탑 국보

통일신라시대 이형석탑을 대표하는 석탑으로 높이는 10.4m에 이른다. 석가탑과 마주 보고 있으며 두 탑 중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탑이다. 다보탑은 과거불인 다보여래(多寶如猼)가 석가여래의 <법화경(法華經)> 설법을 증명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통일신라 조형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기단의 돌계단 위에 놓여있던 네 마리의 돌사자 가운데 보존상태가 가장 좋았을 듯한 세 마리가 일제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다.


1


2


3

1 **불국사 사리탑** 보물

2 **불국사 석조** 보물

3 **해탈교**

사바세계(娑婆世界, 괴로움이 많은 인간세계)에서 불국정토로 향하는 길을 묘사한 해탈교(解脫橋)는 불국사 경내로 가는 길(천왕문 앞)에 있다.



석굴암 석굴

하나의 석굴 안에 요약된 팔만대장경

국보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자연석을 다듬어 쌓은 돔(dome) 위에 흙을 덮어 굴처럼 보이게 한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김대성(金大城)이 전생(前生)의 부모를 위해 창건하기 시작하여 774년 혜공왕 때 완공한 석굴사원으로 건립 당시의 명칭은 석불사(石佛寺)였다. '돌로 비단을 짜듯 감실을 조성했다'는 옛 기록이 말해주듯 거친 화강암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백미(白眉)라 할 것이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의 심오한 불교문화와 과학, 예술정신이 만들어낸 희대의 걸작이다.

1995년 12월 9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054-746-9933 · 불국로 873-243 · 12



석굴암삼층석탑 보물

석굴암 석굴 동쪽 언덕에 단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높이 3.03m의 삼층석탑이다. 기단은 2중이며 모두 8각으로 된 것이 다른 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9세기 전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추정된다.



가장 신비로운 미소와의 만남

본존불

석굴암 본존불상(석가여래불상)은 그 조각의 종교성과 예술성에서 우리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며, 전 세계 종교예술사상 뛰어난 명작으로 손꼽힌다. 본존불의 석련대는 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오묘한 형태와 정교한 조각 솜씨는 본존불의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

1 십일면관음보살상

본존불 바로 뒤에 있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11개의 얼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다. 본존불 바로 뒤에 관세음보살이 오고 그 본존불 앞으로 좌우에 문수(文殊)와 보현(普賢) 두 보살이 조화 있게 배열된 석굴암 원실의 배치는 영원한 힘의 원천과 다방면의 기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

2 감실의 조각상

굴 안 상단에는 좌우에 다섯 개씩 10개의 반구형 감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불상들이 봉안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석굴은 더 깊고 넓은 인상을 풍기게 되며, 벽면의 입체감이 석굴의 신비함과 장중함을 한층 배가시킨다.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듯, 또는 명상하는 듯한 모습이 반가사유상을 연상케 한다.


3

3 금강역사상

보통 탑이나 절의 문 양쪽에서 수문신장의 역할을 한다. 석굴암의 입구 양쪽에 용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금강역사상은 머리 뒤로 커다란 원형의 두광이 있는데, 이는 금강역사가 단순히 힘만 강한 자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 또한 갖춘 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동리목월문학관

한국문단의 거목 김동리(金東里, 1913~1995), 박목월(朴木月, 1916~1978) 선생을 기념하는 이곳에는 두 선생의 유품과 문학 관련 자료들을 보관·진열하고 문학성 조사 및 연구, 문학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문학관 경내에서 신라를 빛낸 인물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054-772-3002 불국로 406-3 dml.gyeongju.go.kr 10, 11, 700



1 경주민속공예촌

신라인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전통공예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곳인 경주민속공예촌은 옛 선현들의 멋스러운 솜씨와 장인정신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도자기, 금속, 목공, 보석, 자수, 토기 등의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공예품전시판매장에서는 구매도 가능하다. 보불로 230 054-746-7270 10, 11, 700



2 신라역사과학관

석굴암의 신비를 밝히는 석굴모형과 단면 모형을 전시하여 석굴암의 과학성을 배우는 장이다. 이곳에는 첨성대에서 관측한 천문도, 서라벌의 옛 모습을 재현한 왕경도(王京圖) 등이 전시되고 있다. 하동 공예촌길 33 054-745-4998 www.sasm.or.kr 10, 11, 700



3 추억의 달동네

한국 근대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 1960~70년대 옛 물건들과 추억이 가득 담겨있다. 옛 초등학교, 저잣거리, 7080상가, 영화관 등 105여 개소에 이르는 코너를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누구나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관광지다. 보불로 216-8 054-748-5002 10, 11, 700 www.daldongnae.co.kr



영지

아사달과 아사녀의 가슴 아픈 사랑이 서린 곳

비지정 문화유산

아사달과 아사녀의 애달픈 사연이 깃들어 있는 영지(影池)는 불국사로부터 서쪽으로 4km 떨어져 있는 저수지로, 못 남쪽에는 아사달이 아사녀의 모습을 조각했다는 영지석불좌상이 있다.


1


2

그리운 아사녀의 모습을 돌에 새기다

1 영지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저수지 남쪽에 있는 얼굴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불상이다. 불국사(佛國寺) 석가탑(釋迦塔)을 건립할 당시 아사달을 찾아온 아사녀가 남편을 기다리다 영지에 몸을 던져 죽은 후 아사달이 그녀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건장한 신체와 허리, 부피감 있는 무릎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자세는 결가부좌이며 오른손은 손끝이 땅을 향하게 하며,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놓고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하였다. 석굴암(石窟庵) 본존불형식(本尊佛形式)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8각형의 섬세하고 고운 연꽃대좌와 불신과 같이 하나의 돌에 새겨진 광배에는 번잡한 불꽃무늬 안에 작은 부처가 화려하게 새겨져 있어 당시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2 불리단길

불국사 가는 거리를 따라 특유의 감성을 가진 카페와 식당들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길이다.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 황리단길에 이어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다.



원성왕릉

가장 완비된 형식의 신라왕릉

사적

이 능은 신라 제38대 원성왕(元聖王. 재위 785~798)을 모신 곳이다. 원래 이곳에는 곡사(鵠寺)라는 절이 있었으나 현재의 숭복사(崇福寺) 터로 옮기고 그 자리에 왕릉을 만들었다. 별칭으로 괘릉(掛陵)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덤의 구덩이를 팔 때 물이 괴어 널(棺)을 걸어 묻었다는 조선시대 민간신앙이 결부된 전설에 따른 것이다. 봉분에서 약간 떨어진 좌우에 화표석(華表石)·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돌사자를 마주 보게 세웠으며, 무인석은 서역인(西域人) 혹은 페르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외동읍 신계입실길 139 버스 605, 607, 609


1


2

어느 나라 사람일까?

1 무인석

원성왕릉석상 및 석주일괄, 보물

원성왕릉에는 서역인(西域人)의 형상을 닮은 무인석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중앙아시아식 터번을 착용한 채 오른팔을 위로하여 주먹을 움켜쥐고 있으며, 왼손으로는 철퇴를 짚고 있다.

2 돌사자상

원성왕릉석상 및 석주일괄, 보물

원성왕릉에는 네 마리의 사자가 고개를 돌려 각각의 방향을 바라보며 능을 수호하고 있는데, 싱글벙글한 사자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구정동방형분 사적

경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는 네모난 형태의 고분이다. 내부를 돌로 쌓고 입구까지 내놓은 특이한 형태의 무덤으로, 불국사 근처 구정동 로터리 북쪽에 있다.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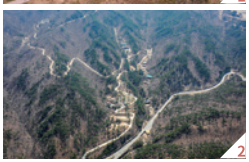
보물

원성왕릉에서 울산 방향으로 가다 모화리 봉서산 기슭에 이르면 모화 불고기단지를 지나 원원사지가 보인다. 원원사(遠願寺)는 통일신라시대 불교종파 가운데 하나인 신인종(神印宗)의 안혜, 낭융 등과 김유신, 김의원, 김술종 장군 등이 뜻을 모아 세운 호국사찰로 현재는 터만 남아 있고 동서 양쪽에 삼층석탑이 서 있다.



1 경주풍력발전소 바람의 언덕

조항산 능선을 따라 띄엄띄엄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는데 이 일대를 '바람의 언덕'이라 부른다. 총 7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이며 경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와 함께 바람길 산책로, 피크닉테이블 존 등이 갖추어져 있다.



2 토함산

높이는 745m로 날이 좋으면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동해와 가까운 산이다. 바다 가까이 있어 산에 안개가 자주 끼는데, 밀려오는 안개를 산이 마시고 토하는 것 같다고 해서 '토함산(吐:토할 토, 含:머금을 함, 山:뫼 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토함산 일대는 경주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자리 잡은 만큼 토함산은 하나의 거대한 유적지다.



3 토함산 자연휴양림

토함산 남쪽 기슭 깊은 계곡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전체 면적은 123만㎡, 1일 수용인원은 300명이다. 이곳은 소나무 등 침엽수림 외에 다양한 활엽수와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산림욕장과 야영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천연 원시림 안에서 산림욕과 보건 휴양을 할 수 있어 자연학습장 및 휴양지로 이용된다.





신라 천 년의 역사와
함께한 산

남산권

"남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남산은 신라 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朴赫居世)가 탄생한 나정(蘿井)에서부터 신라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포석정지에 이르기까지 남산에는 신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50여 곳의 절터, 120여 구의 석불, 96여 기의 석탑이 있는 남산은 신라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노천박물관이다.



#포석정지 #통일전 #나정 #삼릉골 #용장골 #남산



포석정지

신라왕실의 제의와 연회지

사적

신라왕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지금은 정자 등의 건물이 모두 없어지고 마치 전복같이 생긴 석조구조물만 남아있으며, 화강석으로 만든 곡수구의 길이는 약 22m이다.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어울려 여흥을 즐길 때 남산의 신이 왕 앞에서 춤을 추자 왕도 따라 추게 되어 이로부터 '어무산신무(御舞山神舞)'라는 신라춤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경애왕 4년(927년), 왕이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아 최후를 마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남산순환로 816 054-750-8500 500, 505, 506, 507, 508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워 술잔이 자기 앞으로 올 때 시를 한 수 읊는 놀이다. 이런 놀이를 하는 곳을 '곡수거(曲水渠)'라 하는데 천 년 전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현재 포석정 외에는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다.



나정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곳

사적

6촌의 촌장들이 신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다. 어느 날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蘿井)에서 상서로운 백마가 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알은 환한 빛을 내더니 이윽고 알이 깨지고 남자아이 한 명이 나왔는데, 커다란 박 같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성을 박(朴)이라 하고 이름을 혁거세(赫居世,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라 하였다. 박혁거세는 13세 되던 해(BC 57년)에 6촌장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지었다. 최근에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팔각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돌에 새긴 부처님 세계

삼릉골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 때문에 냉골(冷谷)이라고도 부르는 삼릉골은 부처님세계라고 할 만큼 남산에서 가장 많은 불상조각이 있는 곳이다. 처음 만나는 불상은 머리가 없어진 채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삼릉계곡 석조석가여래좌상이며 마애관음보살상, 선각육존불, 선각여래좌상, 마애석가여래좌상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오르는 길목마다 경건함을 갖게 한다.



금방이라도 내려올 것만 같은 모습

삼릉계곡마애관음보살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풍만한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표시하여 가슴에 얹었으며 왼손에는 정병(淨甁)을 들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을 배치하여 관세음보살임을 나타내었는데 목걸이와 팔찌 등 여러 장신구들로 화려하게 몸을 꾸몄다. 이 불상의 표정은 아래에서 바라볼 때 더욱 밝다. 얼굴에 웃음을 듬뿍 머금고 손에는 정병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려올 것만 같은 정감을 느끼게 한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 석양 때 보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알고 넘어가기 : **마애불이란?**

삼릉골을 비롯해 남산 곳곳에서 자주 접하게 될 '마애불'에 대해 알아보자. 마애(磨崖)란 자연암벽에 글자나 그림, 불상 따위를 새기는 것을 말하고, 마애불(磨崖佛)은 그렇게 조각한 불상을 뜻한다. 마애불 형식은 인도에서 처음 생겨나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에 전해졌다.



배동삼릉 사적

삼릉계곡 초입에는 신라왕 세 분의 무덤이 있다. 맨 앞의 능이 제54대 경명왕릉, 가운데는 제53대 신덕왕릉, 맨 뒤에 있는 것이 제8대 아달라왕릉이다. 이 무덤들은 원래 봉분 둘레에 큰 호석을 둘러놓은 제29대 태종무열왕릉과 같은 양식이었는데, 지금은 원형 토분처럼 보인다. 포석로 682-27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삼릉 가기 전 삼불사에 있는 삼존석불은 해의 기울기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신비한 미소로 유명하다. 중앙의 아미타여래상은 조각 솜씨가 뛰어나며 단정하고 단아한 모습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종교적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알고 넘어가기 : 여래란 말은 무슨 뜻?

여래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르는 열 가지 칭호(여래십호如來十號 :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가운데 하나로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 '진리를 획득한 사람' 혹은 '진리에 따라 그와 같이 온 이'라는 뜻이다.







바위 속에 숨어 계신 부처님을 찾아내다

1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남산에서 가장 높은 암자인 상선암에서 남산 불상 중 좌불로는 가장 큰 마애불상을 볼 수 있다. 머리 부분은 돋을새김을 하였으며 몸 아래쪽으로 갈수록 선각(線刻)에 가까운 조각으로 단순화시켜 주위의 바위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삼릉계곡선각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암벽 중앙에 지름 2.5m 되는 연꽃 위에서 설법인을 한 여래상이 있다. 몸체는 모두 선각으로 나타냈는데 얼굴만은 윤곽이 드러나는 돋을새김을 하였다.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3 삼릉계곡선각육존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널찍한 자연암벽에 석가삼존불과 아미타삼존불이 새겨진 불상으로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린 듯 자유로운 필치가 돋보인다.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 남아있고 많은 기와 조각이 흩어져 있어 바위 위에 빗물을 가리는 간단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남산삼릉계석조여래좌상 보물

순백색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불로 단정하게 솟은 정수리 부분(육계), 달팽이 모양의 나발, 가느스름한 눈, 뒤에 세웠던 광배가 아름다운 훌륭한 작품이다. 2008년도에 새로이 보수정비 되었다.

5 삼릉계곡석조석가여래좌상 비지정 문화유산



용장골

남산의 계곡 가운데 가장 깊고 큰 골짜기

용장골은 남산의 고위봉과 금오봉 사이에 있다. 입구에 있는 마을이 용장리이고 이곳에 있었던 용장사에서 유래된 용장골은 용장사곡삼층석탑, 머리 없는 석불좌상(삼륜대좌불) 등이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곳에서 매월당 김시습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쓰기도 했다.


1


2


3


4

1 남산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보물

기법은 사실적이면서도 유려하고 세련된 선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아래 부분의 연꽃무늬 때문에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2 남산용장사곡석조여래좌상 보물

신라 고승 대현스님이 염불을 하면서 돌면 불상도 함께 따라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둥근 형태의 특이한 3층 대좌 위에 몸체만 남아 있다. 삼륜대좌불이라고도 부른다.

3 남간사지당간지주 보물

당간지주(幢竿支柱)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세우는 받침이다. 남간사지 당간지주는 남산지역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당간지주이기도 하다. 특히 꼭대기 안쪽 면에 있는 십자형 간구는 다른 곳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十자 형태이다.

4 남산천룡사지삼층석탑 보물

<삼국유사>에 남산 남쪽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고위산이라 하고 산 남쪽의 절을 고사 또는 천룡사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석탑은 원래 천룡사지에 넘어져 있던 것을 1991년 9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것이다.



서출지

소지왕의 목숨을 구한 편지가 나온 연못

사적

이곳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연못으로 신라 제21대 소지왕(炤知王)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연못에는 이요당(二樂堂)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요당은 물속에서 솟아나온 듯한 돌기둥 위에 서 있으며 반은 물 위에 떠 있는 ㄱ자형으로 된 정자다. 주변의 폐사지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석등대석 등이 정자 옆에 남아 있다. 서출지(書出池)는 한여름이 되면 만발한 연꽃과 연못 주변의 백일홍이 이요당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멋을 자아낸다.

이야기 한 토막 : 서출지의 전설

신라 21대 소지왕이 행차에 나설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말했다.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살피십시오." 왕은 병사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다. 동남산 양피촌 못가에 이르러 두 마리의 멧돼지가 싸우는 것을 구경하다가 병사는 그만 까마귀를 놓쳐버렸다. 이때 갑자기 못 가운데서 풀옷을 입은 한 노인이 편지를 들고 나타났다. "병사께서는 이 글을 왕에게 전하시오." 노인은 글이 써진 편지를 건넨 뒤 물속으로 사라졌다. 왕이 봉투를 받아보자 겉봉에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적혀있었다. 이를 본 신하가 말했다. "두 사람은 평민이고 한 사람은 왕을 가리킴이오니 열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신하의 조언에 따라 왕이 봉투를 뜯었더니 '사금갑(射琴匣)' 즉 "거문고 갑을 쏘아라"라고 적혀있었다. 대궐로 간 왕은 왕비의 침실에 세워둔 거문고 갑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거문고 갑 속에는 왕실에서 불공을 보살피는 승려가 죽어있었다. 승려는 왕비와 짜고 소지왕을 해치려 한 것이었다. 왕비는 곧 사형되었으며 왕은 노인이 건네준 편지 덕분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연못에서 편지가 나와 흉계를 막았다고 하여 서출지라 부른다.



남산부석 비지정 문화유산

바위가 허공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부석(浮石)이라 불리는 남산 부석은 버선을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 같다 해서 '버선바위'라고도 한다. 국사골인 이곳의 바위들은 그 모양이 기묘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남산에는 불국토를 꿈꾸던 신라인의 혼이 담긴 불상들이 산재해 있다.



남산칠불암마애불상군 국보

신선암 절벽 아래에는 칠불암이 있는데 칠불암이라는 이름은 이곳에 조각되어 있는 사면불과 삼존불을 합한 데서 연유한다. 높은 절벽을 등진 뒤쪽 자연암석에 삼존불이 있고 그 앞쪽에는 네 면에 불상이 조각된 돌기둥이 솟아 있다.



남산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보물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 바위에 새겨진 신선암 마애보살상은 부처님이 구름을 타고 와 설법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다. 머리에는 삼면보관을 쓰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얼굴에 감은 두 눈은 깊은 삼매에 잠긴 듯하다.



1



2



3

1 남산불곡마애여래좌상 부처님 골짜기의 할매부처 보물

커다란 바위에 아치형으로 감실을 파고 그 안에 석불좌상을 조각한 석굴사원이다. 남산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으로 친근함과 인정미가 넘쳐 '할매부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 남산탑곡마애불상군 보물

3 남산미륵곡석조여래좌상 보물

통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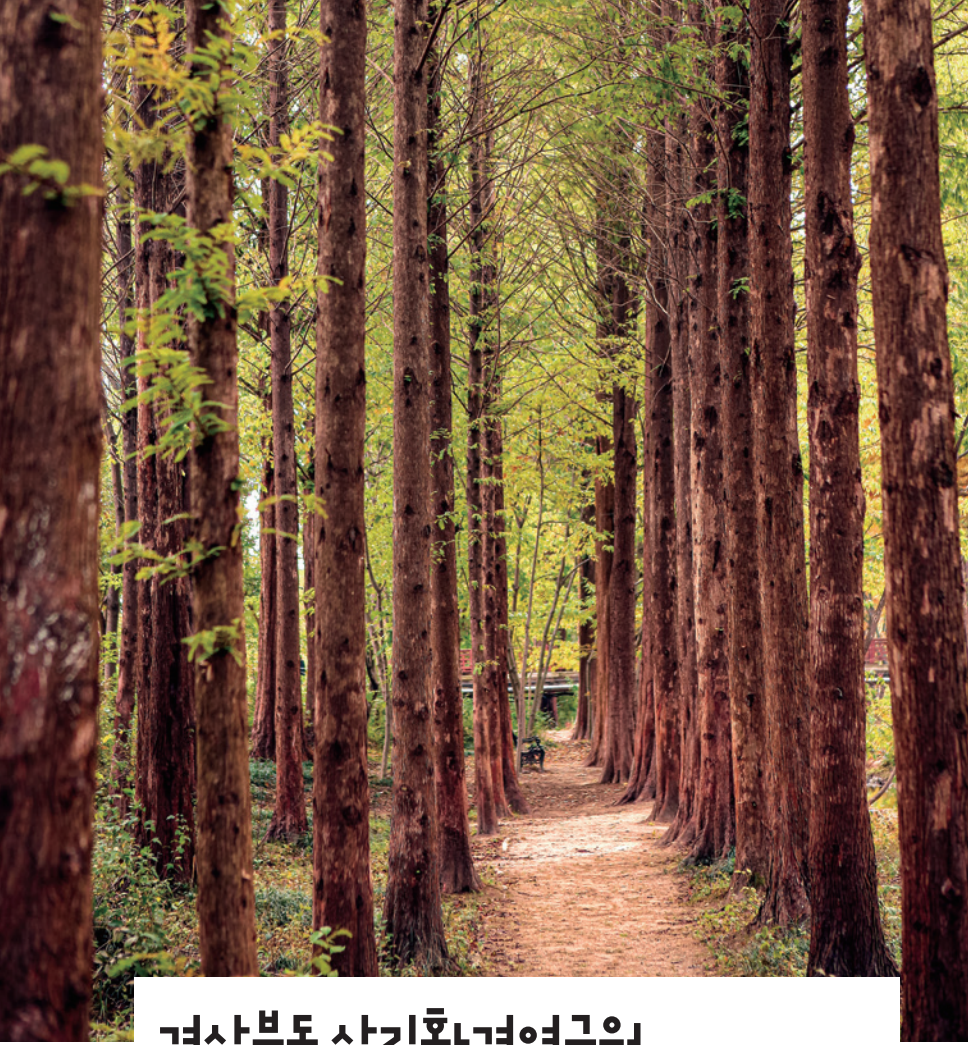
1977년 9월, 역사상 민족과 국토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 삼국통일의 성업과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조성했다. 신라시대 전통건축양식으로 조성한 통일전 안에는 태종무열왕과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이 봉안돼 있으며 삼국통일의 과정이 담긴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다.

칠불암길 6





통일전 앞 은행나무 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에 대한 조사, 병해충 방제, 임산물 연구, 산림 경영을 수행하는 산림 전문 연구기관이다. 영화 '굿모닝 프레지던트(2009)'의 촬영지로 사용되었던 이곳은 통나무 외다리가 놓인 포토존으로 더 유명해졌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유아숲체험원도 운영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통일로 367 054-778-3813





서라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

시내권

고대의 역사와 현재의 삶이 공존하는 경주 시내는 곳곳에서 눈에 띄는 고분들과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대릉원 #천마총 #첨성대 #동궁과 월지
#오릉 #국립경주박물관 #분황사



대릉원

나에게 언제나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풍경

경주에 산재해 있는 고분군 중 가장 큰 규모로 '황남리 고분군'이라고도 불리며 155호 고분인 천마총을 비롯하여 미추왕릉, 황남대총 등 30기의 고분이 있다. 대릉원 전체가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고분 사이로 정취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계림로 9 054-750-8650 60, 61, 277, 500, 502, 505, 506, 507, 508, 604



황남대총

경주시내의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동서 80m, 남북 120m, 높이 22.2m(남), 23m(북)의 쌍분이다. 순장의 풍습과 비단길을 통한 서역과의 교류 등을 알 수 있는 유물 5만 9천여 점이 출토되었다.



미추왕릉 사적

신라 제13대 왕으로서 김씨 중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김알지의 6대손 미추왕(재위 262~284)의 무덤이다. 제14대 유례왕(재위 284~298) 때 외적이 침범해오자 이 능에서 대나무 잎을 귀에 꽂은 죽엽군(竹葉軍)이 나와 외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야기 한 토막 : **대릉원의 유래**

<삼국사기>에 '미추왕은 백성에 대한 정성이 높아 다섯 사람의 신하를 각지에 파견해 백성의 애환을 듣게 하였다. 재위 23년 만에 붕어하니 대릉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대릉원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다.



천마총

대릉원의 꽃

천마총은 대릉원의 고분군 중 유일하게 공개하고 있는 155호 고분이다. 1973년 발굴 과정에서 부장품 가운데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진 말다래(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가 출토되어 천마총(天馬塚)이라 부른다. 천마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축조된 고분으로 추정되는데 금관, 금모자, 새날개모양 관식, 금허리띠, 금동으로 된 신발 등이 피장자가 착용한 그대로 출토되었다. 특히 천마총 금관은 지금까지 출토된 금관 중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다. 054-750-8652





하늘을 나는 백마의 모습

천마도 국보

천마도는 1973년 155호 고분 발굴 당시 다른 금제 유품들과는 달리 왕의 머리맡에 있던 부장품 유물 상자 속 말다래에 그려져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천마총금관 국보

전형적인 신라금관으로 발굴조사 당시 시신의 머리에 착용된 채 발견되었다. 머리 위에 두르는 넓은 띠 앞면 위에는 山자형 모양이 3줄,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2줄로 있는 형태이다. 금관 전체에는 원형 금판과 굽은 옥을 달아 장식하였고, 금실을 꼬아 늘어뜨리고 금판장식을 촘촘히 연결하기도 하였다. 밑으로는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드리개(수식) 2가닥이 달려있다.



대릉원 일원

사적

경주시 노동동과 노서동에 위치한 고분군으로는 봉황대를 비롯해 금관총, 서봉총, 금령총, 식리총, 호우총, 황남동·황오동·인왕동고분이 있다.



봉황대

노동동 남북으로 통하는 도로의 동쪽에 남아있는 신라시대 4~6세기의 고분들이다. 발굴되지 않은 큰 고분인 봉황대(鳳凰臺)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는 4기가 남아있다.



서봉총

1926년에 발굴된 서봉총은 스웨덴의 황태자이며 고고학자인 구스타브 공작이 참관, 출토된 금관을 손수 수습하였다. 여기서 출토된 금관의 내관에는 세 마리의 봉황 모양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스웨덴[瑞典]의 '서(瑞)'자와 봉황의 '봉(鳳)'자를 따서 서봉총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금관총

금관총은 신라고분 중 금관이 출토된 최초의 고분이다. 여기서 출토된 '금관총 금관' 과 '금관총 과대 및 요패'는 각각 국보, 제88호로 지정·보존되어 있다. 1921년 가옥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발견 당시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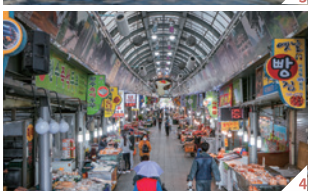
신라대종

신라대종은 성덕대왕신종(국보)을 현대적 기술로 재현한 종이다.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경덕왕 때 시작하여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되었으며 1,200여 년 동안 서라벌을 울려왔으나 2003년 개천절 타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되었다. 경주시는 2014년 3월 각계의 여론과 시민의 뜻을 모아 성덕대왕신종의 정신과 가치를 이은 새로운 종을 주조하기로 한다. 철저한 고증을 기초로 최고의 장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높이 3.66m, 평균두께 20.3cm, 무게 20.17톤의 신라대종이 탄생했다. '모양은 큰 산이 솟은 듯하고 소리는 마치 용이 우는 듯하다'는 성덕대왕신종의 종명 표현대로 맥놀이와 파형이 거의 일치한다. 대종의 종각은 사모 모임지붕 구조에 가로·세로 각 9m, 높이 11m, 면적 88.23㎡로 하되 모든 목재는 국내산 금강송을 사용하였으며 위치는 대릉원과 봉황대가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태종로 767 종각 054-741-2094 31, 60, 61, 277, 500, 502, 505, 506, 507, 508


1


2


3


4



5

1 문정헌

2013년 제78차 국제 펜대회를 기념하여 경주시가 작은 북카페이자 한옥형 도서관으로 정비한 곳이다. 문정헌은 '글이 샘솟는 집'이라는 뜻이다. 한옥 건물의 운치가 남다른 이곳에는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들이 기증한 수천여 권의 책이 있다. 태종로 755 054-742-6070

2 경주읍성 사적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이다. 경주읍성은 고려현종 3년(1012년) 토성으로 처음 축조하여 지방치소인 동경유수관을 두었고 우왕 4년(1378년)에 석성으로 개축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세조때 다시 개축하였다.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파괴된 것을 인조 10년(1632년)에 다시 세웠다. 영조 22년(1746년)에 다시 개축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헐렸다. 경주시는 경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읍성 복원을 추진했다. 현재는 조명이 설치되어 밤에도 읍성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3 신라고분정보센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신라고분정보센터(연면적 576㎡, 지상 1층)는 신라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검색, 최신형 실감영상 시청 및 고분 문화체험, 전시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길이 36m, 높이 4m 규모의 디지털 실감 영상실에서는 이번 천마총 발굴 50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제작된 천마총 디지털 복원 실감형 영상이 공개된다.

4 성동시장, 5 중앙시장

성동시장은 분식골목과 한식뷔페촌이 유명하다. 수십 가지의 분식과 반찬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인심은 덤이다. 특히, 중앙시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4월, 정식으로 야시장을 개장했다. 중앙시장 북편 가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20개 내외의 한옥형 판매대를 꾸려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성동시장 : 동문로24번길 12 / 중앙시장 : 금성로 295



경주 취연벼루박물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벼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벼루 박물관이다. 손원조 박물관장이 197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 수집한 벼루들이 전시되어 있다.

화랑로107번길 10-9 070-7393-8686





교촌마을

교촌마을은 요석궁이 위치했던 곳으로 교촌마을로 불렸던 것은 향교가 있기 때문이다. 일대를 정비 후 각종 전통문화 체험장 등 민속문화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처에는 유명한 경주 최부자댁이 남아있다.

월정교 사적

월정교는 경덕왕 19년(760년)에 건립된 다리로 월성의 서쪽에 있으며, 남천의 남북쪽을 연결하여 남산과 왕궁을 잇는 교통로이자 화려한 왕궁의 다리였다. 교량은 길이 66.15m, 폭 9m, 높이 9m 규모로 2009년 복원되고, 문루는 면적 169.92㎡, 높이 13.82m 규모로 2017년 복원하였다.



향교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경주 향교는 계림 옆의 교동에 있으며 신라 신문왕 때 국학을 창설하였고 고려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인 학원이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향교가 되었는데 조선 성종 때 경주부윤 최응현이 성균관을 본떠서 중수하였다.





1 사마소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조선 중기 과거에 합격한 그 지방의 생원들과 진사들이 각 고을에 설립한 자체 기구로 유학을 가르치거나 정치를 토론하던 곳이다.

2 재매정 사적

김유신 장군의 집터라고 알려진 재매정은 남천을 끼고 월성에서 서쪽으로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우물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전해온다.





황리단길

내남네거리에서 구. 황남초교네거리 700여m 구간에 서울 경리단길을 본 따 이름 붙여진 핫플레이스로 경주여행의 일 번지로 각광받고 있다. 커피숍, 레스토랑, 사진관, 기념품점, 벽화, 포토존 등 이색적인 볼거리, 즐길 거리가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첨성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

국보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만들어진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관측대이다. 신라인들의 과학정신을 반영한 건축물로 돌 하나하나에 고도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각 석단을 이루는 원형의 지름이 점차 줄어들면서 유려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둥근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과 네모난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을 적절히 배합하여 아담하고 안정감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전체 높이 9.17m, 아래지름 5.17m, 지대석 1변의 길이 5.35m의 규모이다. 인왕동 839-1 60, 61



신라의 또 다른 이름

계림 사적

울창한 느티나무와 왕버들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계림(雞林)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가 태어난 곳이자 서라벌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기도 하다. 신라건국 초기부터 있던 숲으로 이천 년의 세월을 이어온 수많은 나뭇가지와 둥치를 보고 있노라면 묘한 신비로움과 신성함이 느껴진다.



왕이 살았다는 초승달 모양의 성

월성 사적

월성(月城)은 신라시대에 궁궐이 있었던 곳인데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겼다 하여 '신월성(新月城)' 또는 '월성'이라 불렸으며, 왕이 사는 성이라 하여 '재성(在城)'이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부터는 반월성이라 불러 오늘에 이른다. 월성 안에는 조선시대의 얼음저장고인 석빙고가 남아있다.



전기가 필요 없는 천연의 얼음저장고

석빙고 보물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얼음저장고로 그 규모나 기법 면에서 걸작으로 꼽힌다. <삼국사기>에 신라 제22대 지증왕(智證王) 때 얼음을 저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이미 삼국시대부터 얼음저장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는 조선시대의 것만 남아있다.



동궁과 월지

수면 위로 비치는 신라시대의 풍경

안압지, 사적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시대 별궁 안에 있던 것으로 신라 원지(苑池)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그 안에는 임해전을 비롯한 여러 부속건물과 정원이 있었으며 신라 문무왕 14년(674년)에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귀한 새와 기이한 짐승들을 길렀다고 전한다. 임해전은 931년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군신들의 연회나 귀빈들의 접대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못의 원래 이름은 월지(月池)였는데 조선시대에 폐허가 된 이곳에 기러기(雁)와 오리(鴨)가 날아들어 안압지(雁鴨池)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1975년 준설을 겸한 발굴조사에서 신라 때 축조되었던 안압지의 모습을 거의 확인하였다. 임해전터에서 출토된 보상화문전(寶相華紋塼, 보물 모양의 아름다운 꽃무늬를 새긴 벽돌)에 새겨진 기년명(紀年銘)으로 궁궐의 축조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화로 102 054-750-8655~6 10, 11, 12-1, 153, 600, 601, 602, 604, 605, 607, 609, 700



동궁과 월지 주변 연꽃단지

안압지 주변에는 연꽃이 수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못이 있는데 가족끼리 연인끼리 정다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야기 한 토막 : **14면 주사위를 던져라!**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주령구'라는 목제품이 있다. (목제주령구) 14면으로 이루어진 주령구는 잔치 때 흥을 돋우는 놀이기구로 이것을 굴려 나타나는 면에 쓰인 내용에 따라 벌칙을 정했다. 벌칙으로는 '술 석 잔 한 번에 마시기', '술 마시다 크게 웃기', '스스로 노래 부르고 스스로 마시기' 등이 있다.



황룡사지

동양 최대의 가람터

사적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 14년(553년)에 이곳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하였으나 그곳에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사찰로 고쳐 짓고 황룡사(皇龍寺)라 했다. 553년에 짓기 시작하여 선덕여왕 13년(645년)에 완성했으니 4대 왕 93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대불사였다. 백제의 기술자 아비지가 건조한 구층목탑과 높이가 일장 육 척이나 되는 신라 최고의 금동장륙상은 몽고군의 침입 때 소실되었다. '신라의 땅이 곧 부처님이 사는 땅'이라는 신라인들의 불교관이 잘 나타나 있는 곳이며, 솔거가 그렸다는 '금당벽화'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초석과 금당터, 목탑터, 강당터, 중문터 등이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총면적 2만 5천여 평의 동양 최대사찰이었다.



황룡사 역사문화관

황룡사역사문화관은 지상 2층, 연면적 2,892㎡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황룡사 복원이 완공될 때까지 황룡사지에서 발굴조사와 복원 연구된 귀중한 자료를 재현하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은 1/10 크기의 모형으로 높이 8m, 총 42,000개의 목부재와 85,000장의 동기와가 사용되었으며 8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전시하였다. 임해로 64-19 054-777-6862 10, 11, 15, 16, 61, 100, 100-1, 130, 150, 150-1, 277, 700

이야기 한 토막 : **불타버린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12년(643년)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율사의 요청으로 건조되었다. 아홉 개의 층은 각각 신라 주변의 아홉 나라를 상징하며 탑을 세움으로써 외적의 침범을 누를 수 있다고 믿었다. 고려 고종 25년(1238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구층목탑을 포함한 가람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폐허가 되고 말았다.



오릉

고신라를 추억하다

사적

경주 포석로 오른편에 위치해 있는 오릉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진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와 알영왕비의 시신을 합장하고자 하는데, 큰 뱀이 쫓아와 방해하므로 오체(五體)를 각각 나누어 장사지냈으므로 오릉(五陵)이라고 하며 또한 사릉(蛇陵)이라고도 일컫는다'라고 전하며, <삼국사기>에 의하면 '오릉은 박혁거세왕, 알영왕비,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과 같은 박씨왕가의 초기 능묘'라고 전해진다. 고분의 형태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원형토분이다. 054-750-8500 500, 502, 505, 506, 507, 508



숭덕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오릉 남쪽에 있으며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실록에 의하면 조선 세종 11년에 창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선조 33년에 재건하였다고 한다. 경내에 있는 신도비에는 박혁거세와 숭덕전의 내력이 적혀 있다.



알영왕비가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곳

알영정

숭덕전 뒤편에 있는 알영정은 신라의 첫 왕후인 알영왕비가 태어난 곳이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온 날 이곳 사량리 알영정에서는 계룡이 나타났는데, 한 노파가 가보니 계룡이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인물이 뛰어나게 고왔다고 한다. 알영우물에서 나왔으므로 이름을 알영(閼英)이라 불렀고 훗날 박혁거세의 왕비가 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 년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의 전당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1913년 경주고적보존회 발족을 시작으로 1945년 국립박물관 경주분관을 거쳐 1975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유물에 따라 신라역사관, 신라미술관, 월지관, 특별전시관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어린이 박물관을 두어 청소년들의 우리 문화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있다. 국보인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해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약 3천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관람시간

평일 | 10:00~18:00
토요일(3~12월) | 10:00~21:00
토요일(1~2월)·일요일·공휴일 | 10: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10:00~21:00

휴관일 | 매년 1월 1일, 추석 당일, 설날 당일
성덕대왕신종 녹음 종소리 | 오전 10시부터 20분 간격

일정로 186
054-740-7500
gyeongju.museum.go.kr
10, 11, 12-1, 153, 600, 601, 602, 603, 604, 605, 607, 609





1



2 3

1 금관총금관 및 금제관식 국보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금관총에서 발견된 신라의 금관으로, 머리띠와 出자 장식 주위에는 점이 찍혀 있고 많은 비취색 옥과 구슬 모양의 장식들이 규칙적으로 금실에 매달려 있다.

2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국보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기마인물형 토기는 방패를 든 무사가 말을 탄 모습으로, 말은 말머리 꾸미개와 마갑을 착용하고 있다. 가야의 마구와 무기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불법의 둥근 소리

3 성덕대왕신종 국보

현존하는 한국 최대의 대종으로 봉덕사종이라고도 한다.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다가 36대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한 대종이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오직 하나 성덕대왕신종이 있을 뿐이다"라는 격찬을 받을 정도로 장중하고 맑은 소리를 낸다. 소리뿐만 아니라 외형도 유려한 형체감을 띄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계림로보검 보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금으로 만든 신라 때의 보검. 삼국시대에 출토된 여러 종류의 칼과는 그 형태가 다르고 표면에 나타난 장식은 서구성이 짙은 이색적인 문양으로 유럽 혹은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분황사

원효스님과 자장스님의 법열이 느껴지는 곳

사적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3년(634년)에 건립되었으며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고승인 원효대사와 자장율사가 계셨던 절이다. 지금은 소실되고 없는 천수대비관음보살 그림은 영험이 있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경덕왕 때 희명이란 여인의 다섯 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멀자, 아이를 안고 천수대비관음보살 앞에 가서 <도천수대비가>를 부르며 기도하였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현재는 분황사 석탑과 화쟁국사비부, 석정과 당간지주 등이 남아있다. 분황사 석탑은 전탑(塼塔,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으로 신라시대 최초로 만들어진 석탑이다.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것으로 문설주에 새겨진 금강역사상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분황로 94-11 054-742-9922 10, 11, 15, 16, 100, 100-1, 130, 150, 150-1, 277, 700






용이 살던 우물

1 분황사석정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우물로 겉모양은 팔각형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외부의 팔각모양은 부처님이 가르친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하며 내부의 원형은 원융(圓融)의 진리를 상징한다. 이 우물은 용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담고 있으며, 낙엽이 져도 우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2 분황사모전석탑 국보

3 금강역사상

4 분황사약사여래입상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경주 금강산

금강경이 된 산

경주 북쪽에 솟아 있는 해발 280m 높이의 경주 금강산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인 <금강경>에 의거해 그 이름이 붙여진 산이다.



이차돈의 넋을 기리며 지은 절

백률사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신라 법흥왕 14년(527년) 불교의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異次頓)의 목이 높이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진 곳에 지었다는 절이다. 경내에 옛 건물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초석과 석등의 지붕돌 등이 남아있다. 백률사의 금동약사여래입상은 신라시대에 만든 1m가 넘는 금동불상이다.



신라 3대 금동불상 가운데 하나

백률사금동약사여래입상

국보

백률사 대웅전에 모셔졌던 금동약사여래입상은 불국사 극락전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비로전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신라 3대 금동불상 중 하나로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탈해왕릉 사적

신라 제4대 탈해왕(재위 57~80)은 신라 최초의 석(昔)씨 왕이다. 표암 근처에 있는 원형봉토분인 신라 탈해왕릉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간소한 무덤이며 능 서편에는 왕을 제향하는 숭신전이 있다.



굴불사지석조사면불상

보물

금강산에 오르는 입구에 있는 굴불사지는 등산객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서남북 사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은 사방정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곳의 사면석불은 대승불교의 발달과 더불어 성행한 사방불 신앙의 한 형태였다.



1

1 표암 경상북도 기념물

표암은 신라 6촌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알천양산촌'의 시조가 세상을 밝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곳이다. 이곳은 6촌의 촌장들이 화백 회의를 열고 신라 건국을 의결한 성스러운 유적지로 유허비와 표암재 등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2

2 숭신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조선 철종 때 군수 권상문(權相文)이 경주 월성(月城) 안에 창건하였다. 1906년 숭덕전, 숭혜전의 예와 같이 3성의 시조임금을 같이 봉사(奉祀)하면서 숭신전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1980년 월성 안에 있는 민가를 철거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봄, 가을로 춘분과 추분에 향사를 지낸다.

이야기 한 토막 : 불국토의 이상을 꿈꾸었던 서라벌

법흥왕 14년(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되자 서라벌에는 수많은 큰 절들과 불탑, 불상들이 지어진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에 의하면 '절들이 별처럼 이어져 있고, 탑들이 기러기 행렬처럼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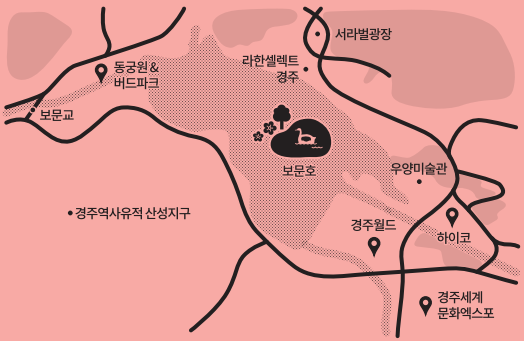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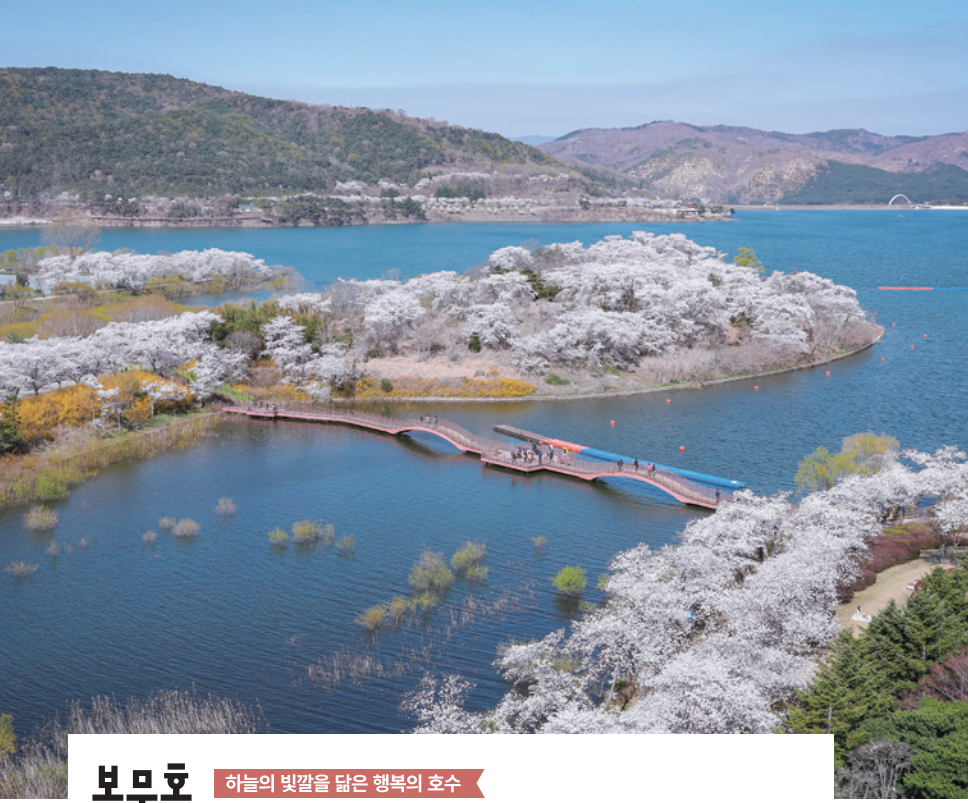
국제적인 규모의
종합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권

보문호를 중심으로 851만㎡(242만 평)의 부지 위에 조성된 보문관광단지는 주변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고급호텔과 콘도, 온천, 골프장, 야외공연장, 놀이시설 등 각종 문화레저시설을 두루 갖춘 국제적인 종합휴양 관광단지다.



#보문호 #동궁원 #버드파크 #경주월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하이코



보문호

하늘의 빛깔을 닮은 행복의 호수

보문호는 경주시 동쪽 명활산 옛 성터 아래 만들어진 165만㎡(50만 평) 규모의 인공호수로 주위에는 국제적 규모의 호텔과 경주월드 등 각종 위락시설과 공원시설이 갖춰져 있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잘 단장되어 있어 하이킹 코스로도 인기가 높다. 보문호 주변에는 유람선 선착장, 보문상가, 육부촌, 골프장, 우양미술관(구 선재미술관), 야외 공연장, 수상멀티미디어공연장 등이 있고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054-740-7381 10, 16, 18, 100-1, 150-1, 277, 700







보문호반길

보문호 둘레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로다. 총 7km의 구간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곳곳에 물너울공원, 사랑공원 등의 소규모 공원과 물너울교, 호반 1교와 같은 호수 위 다리, 피크닉 테이블, 벤치 등의 편의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산책로에는 자전거, ATV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안전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보문정

보문단지 내에 있는 정자다. CNN에서 '한국의 비경'으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팔각정자와 2개의 연못 주위로 벚나무, 단풍나무 등이 식재되어 사계절 내내 풍경을 감상해도 모자람이 없다.





몸도 마음도 보문호처럼 드넓게

1 유람선 선착장

보문호를 선회하며 아름다운 호반을 감상하고 낭만과 추억의 멋진 순간을 담을 수 있는 백조유람선과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다. 62인승, 32인승의 유람선과 2인승, 4인승의 페달보트 및 쾌속모터보트 등을 타볼 수 있다.

2 보문호 수상공연장

관람석 2,070석 규모와 길이 50m의 무대를 갖춘 멀티미디어 공연장(지상 1층 연면적 1천155㎡)이다. 외형은 동양사상의 12간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2개의 기둥과 지붕은 흥겨운 잔치집의 휘날리는 차일을 형상화했다. 보문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주 동궁원

경주 동궁원은 신라 문무왕 때 별궁이었던 동궁에 커다란 연못을 파고 화려한 꽃을 심고, 진기한 새와 짐승을 들여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문관광단지에 조성한 신개념 관광체험시설이다. 이곳은 동궁식물원, 버드파크, 농업체험 시설 등 3가지 테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되었다. 보문로 74-14 054-779-8725 10, 11, 16, 18, 100-1, 150-1, 277, 700



동궁원



버드파크





경주월드

1985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장한 경주월드는 역사가 깊은 놀이공원이다. 도투락월드로 개장했다가 1992년부터 경주월드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경주월드 어뮤즈먼트의 대표 테마존은 '드라켄'이 있는 드라켄 밸리이다. 놀이기구와 다양한 공연, 이벤트 외에도 부대시설 및 식당이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장소다. 보문로 544 054-745-7711 www.gjw.co.kr

강동워터파크

영남권 최대 규모의 실내외 사계절 워터파크로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안을 테마로 총 1만 2천 평 부지에 조성된 워터파크다. 최고인 2.6m 높이의 파도풀과 토렌트리버, 다양한 워터슬라이드 등 각종 물놀이 시설이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한다. 사계절 운영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천연온천수를 이용한 스파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보불로 391 1588-0776





우양미술관(구 선재미술관)

우양미술관은 경주의 고대문화와 현대미술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3개의 대형전시실을 갖추었으며 연중무휴이다. 보문로 484-7 054-745-7075 www.wooyangmuseum.org

캘리포니아비치

이국적 향기가 화려하게 풍기는 33,000㎡의 대규모 프리미엄급 워터파크다. 하계시즌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100m급 파도풀, 익스트림리버, 스파, 초대형 슬라이드 시설들이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초대형 물놀이 시설들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운영기간 : 6월~8월 유동적



주렁주렁

365일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는 도심 속 애니멀 테마파크다. 단순히 동물을 관찰하는 동물원을 넘어, 교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접할 수 있는 장소다. 1644-2153



경주보문 실탄사격장

보문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레저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국내 최신 시설의 실탄사격장이다. 보문단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스릴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054-741-4007



신라와 21세기가 공존하는 천년고도의 새 랜드마크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세계적인 문화축제브랜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다.(1998년, 2000년, 2003년, 2006년-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원서 개최, 2007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기간에는 전시와 공연, 영상,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비행사 기간에도 공원이 연중 개방되어 경주타워, 문라이트 레이저 쇼(Moonlight Laser Show), 3D 애니메이션 월드, 신라문화역사관, 세계화석박물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체험 거리를 맛볼 수 있다.

경감로 614 | 054-748-3011 | www.cultureexpo.or.kr | 10, 11, 100, 100-1, 130, 150, 150-1, 700



솔거미술관

경주 최초의 공립미술관이다. 한국화의 거장 소산 박대성 화백이 작품 830여 점에 대한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미술관 건립 구상이 시작되었고, 2015년 실크로드 경주 엑스포 개막에 맞춰 문을 열었다. 미로처럼 전시공간을 연출하거나 큰 창을 하나의 액자처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동극장

(재)정동극장은 2011년 경주브랜드공연 <신국의 땅, 신라>를 시작으로 2014년 <찬기파랑가>, 2015~2017년 <SILLA바실라>, 2018년 <에밀레>를 통해 매년 더 나은 공연으로 한국 전통공연예술의 명품화, 대중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앞으로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개방적이고 융성했던 신라를 알려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 기업홍보관 SSNC

SSNC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하는 SMR 기반 탄소중립 미래도시 비전을 담은 기업홍보관으로, 소형모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몰입형 영상으로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입구(경감로 614) | 054-743-3223



천 년의 빛

경주타워

신라 삼보(三寶) 중 하나인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 건축물이다.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신라문화역사관이 마련돼 있으며, 야간에는 경주타워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레이저쇼가 펼쳐진다.



경주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고품격회의·전시공간

하이코(HICO)

2015년 3월 2일 개관한 경주 하이코(HICO)는 3,5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 중심형 컨벤션센터로 관광특구인 보문관광단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숙박, 레저 등 다양한 편의시설, 관광 시설을 갖추고 있어 국제기구, 기업, 정부 등 컨벤션 주최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문로 507 054-702-1000 www.hicocity.kr





진평왕릉

사적

제26대 진평왕의 능이다. 진평왕은 579년에 왕이 되어 632년에 승하할 때까지 54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 진평왕릉은 밑 둘레 약 10m, 높이 약 7m의 원형 토분으로 장식 없이 소박한 모습이다. 무덤 밑둘레에는 자연석을 사용하여 무덤 보호석렬(石列)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나 지금은 몇 개만 보인다.

낭산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벨 수 없는 신령스러운 산

사적

낭산(狼山)은 높이 108m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지막한 야산 같지만 신라의 삼산오악사상(三山五岳思想)을 전개하는 중심지였으며 신유림(神遊林,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까지 불리며 왕실 제사를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 신문왕릉, 효공왕릉, 소조불을 감실에 모셨던 능지탑지, 왕실의 복을 빌었다는 황복사지, 호국사찰인 사천왕사지 등이 있는 곳이다. 거문고의 명인 백결선생(百結先生)이 낭산 기슭에서 살았고, 대학자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독서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야기 한 토막 : **낭산의 전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실성왕(실성마립간) 12년(413년) 8월에 구름이 낭산에 일어났는데 구름이 누각같이 보이고 사방에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의 신령이 내려와 노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왕은 이후로 낭산을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 나무 한 그루 베지 못하게 하였다.



사천왕사지 사적

피리의 달인이며 <제망매가>와 <도솔가>를 지었던 월명대사가 살았던 사찰로 부처님의 힘으로 당나라 세력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문무왕 19년(679년)에 완공한 호국사찰이다.



능지탑지 경상북도 기념물

능지탑은 십이지신상의 조각이 비교적 정확히 남아있는데 소조불상을 모셨던 불감(佛龕, 불상을 모셔 두는 방이나 집)으로 추정하고 있다.



명활성

명활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둘레를 따라 자연석을 이용하여 쌓은 성으로 성곽의 전체 길이는 6km에 이른다. 왜구들의 잦은 침략으로부터 서라벌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신라 제20대 자비왕(자비마립간)이 이곳에 거처하기도 했다. 보문호 남쪽 천군동에는 절터와 함께 삼층쌍탑이 남아있다.



선덕여왕릉 사적

"내가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자리를 잡은 곳이다. 사천왕사지 위의 낭산 정상에 위치하며 선덕여왕의 예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지기삼사)가 서려있는 곳이다.



1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2017년에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 자동차 박물관으로 최초의 자동차부터 대통령 의전차, 예술적 가치가 높은 스포츠카 및 클래식카 등 약 70여 대의 세계 다양한 자동차를 테마별로 전시하고 있다. 보문로 132-22 054-742-8900



2 한국대중음악박물관

대한민국 최초로 유성 음반부터 현재까지의 음반을 상설 및 기획 전시하는 곳이다. 무성영화 시절에 사용했던 진귀한 음향 시스템과 K-POP 100년사의 주요 음반과 관련된 여러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
엑스포로 9 054-776-5502



3 키덜트 뮤지엄

2016년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아이(Kid)와 어른(Adult)이 함께 추억을 공유하는 영화와 음악을 테마로 한다. 200년 전 촛불 영사기를 비롯해 마징가, 건담 등 인기 캐릭터 등 진귀한 전시품이 5만여 점 전시되어 있다. 보문로 132-16 콜로세움 1층, 3층 054-744-7997 kidultmuseu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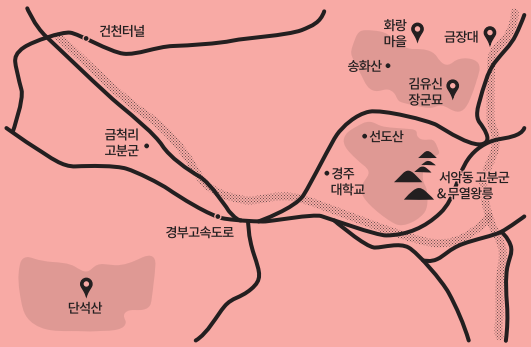




화랑의 발자취를 찾아서

서악권

시내 서쪽에 있는 서악권(선도산, 송화산, 단석산)에는 화랑들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많다.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무열왕의 능에 비롯해 신라 화랑들의 수련 터였던 단석산과 삼국시대의 명장(名將) 김유신 장군의 묘가 있는 곳이다.



#서악동고분군 #무열왕릉 #김유신장군묘
#단석산 #금장대 #화랑마을



서악동고분군 사적

서악동 무열왕릉의 바로 뒤편 구릉 능선에 분포되어 있는 대형고분 4기를 가리킨다. 이 고분군은 규모로 보아 무열왕 직계조상들의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화산 남쪽과 선도산 기슭에는 서악동고분군과 함께 무열왕릉과 김유신장군묘가 있고 당대의 외교관이었던 김인문의 묘와 신무왕 대의 공신인 김양의 묘가 있다. 능남길 28 60, 61, 300-1, 300-2, 330



서악동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서악동마애여래삼존입상은 선도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큰 바위에 높이 7m의 아미타여래입상을 조각하고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입상을 모신 삼존불상이다. 현재 본존불의 머리 부분은 상당히 파손되었으나 양 보살상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



2

1 김인문묘

좌, 경상북도 기념물

김인문은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며 문무왕의 친동생으로 진덕여왕 5년(651년) 이래 당나라를 일곱 번이나 왕래하며 삼국통일 전후 당나라와의 외교에 큰 공로를 세운 뛰어난 외교관이었다. 묘 앞쪽에는 비석을 세웠던 귀부가 남아있다.

1 김양묘

우, 경상북도 기념물

경주시 서악동 무열왕릉 동쪽에 있는 2기의 고분 중 규모가 작은 고분을 말한다. 김양은 신라 제45대 신무왕 때의 공신이며 무열왕의 9대손으로 묘 주위에는 별다른 석물이 없고 김양묘라는 표석만 있다.

2 서악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태종무열왕릉 북쪽에 있는 서악서원은 김유신, 설총, 최치원을 모신 서원으로 명종 18년(1563년에 창건되었으며, 퇴계선생이 서악정사로 이름 지었다. 서원 내에는 조선 중기의 명필 원진해(元振海)가 쓴 편액이 걸려있다.



무열왕릉

삼국통일의 주역 이곳에서 잠들다

사적

선도산 아래에 자리 잡은 무열왕릉은 삼국시대 말기의 능으로 신라 역대 능묘 중 피장자가 명확한 능이다. 높이 약 13m, 주위둘레 약 112m로 분구의 언저리에는 자연석으로 된 호석을 둘렀다. 이후 통일신라시대 능묘의 분구 언저리에는 잘 다듬어진 돌로 호석을 돌리고 여기에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배치하거나 석난간, 석사자, 석인상 등을 배치하는 화려한 왕릉으로 변화한다. 이에 비해 무열왕릉은 원형토분으로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다. 본명이 김춘추인 태종무열왕은 김유신 장군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으나 통일의 완성은 그의 아들 문무왕 때(676년) 이루어졌다. 서악동 842 054-750-8500

60, 61, 300-1, 300-2, 304, 330



태종무열왕릉비 국보

문무왕 원년(661년)에 무열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지금은 비석의 몸체가 없어지고 비신(碑身)의 받침돌이었던 귀부(龜趺)와 머리 부분인 이수가 남아있다.

이야기 한 토막 :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김춘추

태종무열왕은 신라 제25대 진지왕의 손자이다. 그의 어머니는 제26대 진평왕의 딸이자 제27대 선덕여왕의 동생이었다. 조부가 실정으로 4년 만에 왕위에서 추방된 후 직계 손들은 왕위계승권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당대의 명장 김유신의 도움에 힘입어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보위에 올라 신라 제29대 왕이 되었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눈앞에 두고 661년 붕어(崩御, 왕의 죽음)하였다.



김유신장군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화랑

사적

김유신장군묘는 높이 5.3m에 둘레가 50m나 되는 큰 무덤으로 봉분 아래에는 병풍처럼 판석으로 호석을 설치하였고 호석 중간마다 평복 차림에 무기를 든 십이지신상을 배치하였다. 호석의 십이지신상은 신라 중대 이후의 왕릉과는 달리 평복 차림으로 옷매무새와 몸매의 유려한 표현이 뛰어난 작품이다. 일명 흥무대왕릉으로도 불리고 있다. 충효천길 64-5 054-750-8500 30, 40, 41, 50, 51, 70, 273, 301, 303, 304, 306, 332, 333, 334, 338, 350, 700



금장대

금장대는 서천과 북천이 합류하는 곳에 있으며 경주 삼기팔괴 중 한 곳이다. 경주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자랑하며,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무대가 된 곳이다. 임진왜란 때 지휘 본부가 되기도 했던 역사의 전적지로도 잘 알려진 곳이다. 금장대 아래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던 청동기 시대에 새겨진 '석장동 암각화'를 확인할 수 있다.



화랑마을

청소년 수련활동과 글로벌 체험관광 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화랑의 정신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화랑마을은 경주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접목시켜 체험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단석산

김유신 장군의 수련 터

신라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이었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김유신장군의 수련터인 중앙석굴로 와전되었고, 난승(難勝)에게 전수받아 체득한 신술로 단칼에 바위를 잘랐다는 단석산(斷石山)으로 불리고 있다. 김유신을 비롯한 화랑들의 수련 터로 알려진 단석산은 서악동을 거쳐 금척리 고분군을 지나 건천에서 왼편으로 우뚝 솟은 산으로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827m)이자 백제에 맞선 신라의 국방요충지였다.



신라 최초의 석굴사원

단석산신선사마애불상군

국보

거대한 자연암벽이 동서로 나뉘어 있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구조로 '신라 최초의 석굴사원'이라 불린다. ㄷ자형의 거대한 암벽 못지않은 석굴에는 총 10구의 불보살상과 인물상이 새겨져 있다.



율동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경주 벽도산의 서쪽을 향한 바위에 삼존불을 조각한 마애불로 서방 극락세계를 다스린다는 아미타불을 가운데에 새기고 양쪽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새겼다.



금자를 간직한 무덤

금척리고분군 사적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금자(金尺)를 중국 사신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덤에 묻고 주변에 크고 작은 40여 기의 가짜 무덤을 만들어 금척리(金尺里)라 불리게 되었다. 고분의 구조는 돌무지덧널무덤이다.


1


2

1 박목월 생가

한국 문단에 큰 획을 남겼던 경주 출신 박목월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목적으로 2013년, 건천읍 모량리 생가터에 가족과 문인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복원하였다. 문인들과 관광객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쉴 수 있는 문학 공간으로 이용되며 새로운 문학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건천읍 행정길 61 054-772-3077

2 화랑의 언덕

단석산 정상부에 있는 드넓은 언덕이다. 화랑의 언덕과 함께 꼭 둘러봐야 할 곳은 '명상바위'다. 명상바위에 오르면 발밑으로 내남면 비지리 학동마을의 다랭이논 풍경을 볼 수 있다.





불교, 유교, 천도교의
전통을 느껴볼 수 있는 곳

북부권

불교와 천도교의 성지이자 유교문화의 전통까지 엿볼 수 있는 북부권은 신라는 물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경주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동학의 산실 용담정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조선시대 반촌(班村, 양반마을)인 양동마을은 북부권의 빼놓을 수 없는 답사코스 가운데 하나이다.



#양동마을 #용담정 #옥산서원 #운곡서원



옥산서원

회재 이언적 선생을 기리는 곳

사적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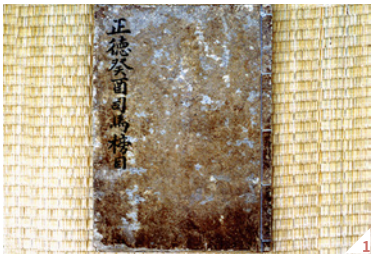
회재 이언적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은 선조 5년(1572년) 경주부윤 이제민 등 유림들이 성리학자이며 동방오현으로 추앙받는 회재선생을 받들기 위해 건립하였다. 선조 7년(1574년)에 옥산(玉山)이라는 사액을 받아 서원으로 승격되었다. 옥산서원 편액(扁額. 종이, 비단, 널빤지 따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은 원래 이산해(李山海)의 글씨였으나, 1839년 불타버린 구인당을 새로 지으면서 추사 김정희가 다시 썼다. 구인당의 편액은 무변루와 같이 석봉 한호의 글씨로 대청의 북쪽 벽에 걸려있다.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054-762-6567 203



독락당 보물

옥산서원 서북쪽 700m 지점에 위치한 독락당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 1532년 조정에서 물러나 지은 사랑채이다. 정면에는 '옥산정사'라는 퇴계 이황 선생의 친필현판이 걸려있다.



1


2

1 정덕계유사마방목 보물

조선시대에 실시된 사마시(司馬試) 곧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이러한 사마방목은 고려시대의 것은 그리 많지 않고 조선시대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정덕계유사마방목은 중종 8년(1513년)에 실시한 사마시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책이다.

2 정혜사지십삼층석탑 국보

독락당 뒤편 정혜사지에 남아 있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석탑으로 불국사 다보탑,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석탑의 걸작으로 평가되며 조형미가 빼어나다. 탑 부근엔 신라 때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인 정혜사라는 절이 있었다.



운곡서원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서원. 정조 8년(1784년)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권행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해 추원사를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고, 뒤에 운곡서원으로 개편하였다. 운곡서원 마당에는 35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랑한다.



양동마을

조선의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곳

국가민속 문화유산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월성 손씨(月城孫氏)와 여강 이씨(驪江李氏)에 의해 형성된 마을로, 150여 채의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고색창연함을 자랑하고 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양반마을로, 마을 자체가 문화유산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 1, 보물 4, 국가민속 문화유산 12, 유형문화유산 2, 기념물 1, 민속문화유산 1, 문화유산 자료 1, 향토문화유산 2)

2010년 7월 31일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 강동면 양동마을길 128 | 054-762-6263 | 252


1


2

양동마을의 입향조

1 손소초상 (孫昭肖像) 보물

양동마을의 입향조(入鄕祖, 마을에 맨 처음 들어와 터를 잡은 사람)로 불리고 이시애 난(1467) 때 공신이 된 손소(孫昭, 1433~1484)의 초상화이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회화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 서백당 송첨종택(松詹宗宅) 국가민속 문화유산 / 삼현출생지지(三賢出生之地)의 명당(明堂)

서백당(書百堂) 집은 이 마을 입향조인 양민공(襄敏公) 손소(孫昭)가 1457년에 지은 월성손씨의 종갓집으로 규모와 격식을 갖춘 대가옥이다. 서백당은 하루에 '참을 인(忍)'자를 백번 쓴다는 뜻이며 근래에 와서 굳어진 당호(堂號)이다. 집터를 잡아준 풍수가가 "설창산(雪蒼山)의 혈맥이 응집된 이 터에서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예언했다 하는데, 손소 공의 둘째 아들로서 명신이자 청백리로 상주(尙州) 주민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모셨던 손중돈 선생과 그의 생질이 되는 문원공 회재 이언적 선생이 이곳 외가에서 태어났고, 한 분은 아직 미탄생이라 한다. 요즈음도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사랑채 마당에 서면 경관이 빼어나 평화와 행복의 요람처럼 느껴진다. 국립대구박물관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이 건물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무첨당 보물

1508년경에 지은 여강 이씨(驪江李氏)의 종가로 1543년에 지은 제청의 기능을 중요시한 간결하고 세련된 솜씨의 주택이다. 무첨당은 조선 중종~명종 때 문신 회재 이언적 선생의 손자 중 맏손자인 이의윤 공의 호이며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는 뜻이다.

1 관가정 보물

조선 중종(1506~1544) 때 청백리로 이조판서를 지낸 우재(愚齋) 손중돈(孫仲暾, 1463~1529) 선생이 1514년 대사간 재직 시 나라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자 여러 번 상소(上疏)를 올린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落鄕)하여 곡식이 자라는 기쁨을 보는 것처럼 자손과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은 집이다. 동북편에 양민공 손소의 영정을 모신 영당이 있으며, 격식을 갖추어 간결하게 지은 이 집은 특이하게 대문이 사랑채와 연결되어 있어 조선 중기의 남부 지방 주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눈에 들어오는 형산강과 경주를 품어 안은 경관이 일품이다. 1981년 보수 때 주위에 담장을 쌓고 일각 대문을 내었다.


1

2 향단 보물

양동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화려한 지붕의 건물로 회재 이언적 선생이 1543년경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중종임금이 그의 모친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해서 지어준 집이다. 당시에는 흥(興)자 모양의 99칸이었으나 허물어져 1976년 보수하면서 56칸으로 줄었다. 미로처럼 연결된 통로와 외부로 통하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2



심수정 국가민속 문화유산

형을 위해 벼슬을 마다하고 노모 봉양에 정성을 다한 회재 이언적 선생의 아우 농재 이언괄 공을 추모하여 1560년경에 건립한 정자이며 큰 고목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용담정

동학의 산실

비지정 문화유산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기본사상)으로 동학을 이끈 수운 최제우(1824~1864)가 태어난 곳이자 인간 절대 평등의 가르침을 담은 <용담유사>를 저술한 곳으로 천도교의 발상지다. 현재 구미산기슭 약 40만 평의 땅에 수도원 시설이 들어서 있다. 용담정은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최제우가 태어난 가정리 생가터에는 1971년에 세운 유허비가 있고 맞은편 산 중턱에는 그의 묘가 있으며 묘의 왼쪽 산골짜기에 용담정이 있는데, 이 세 곳이 모두 1km 이내의 거리에 있다. 현곡면 용담정길 135 용담정 수련원 : 054-745-5345



수운 최제우 생가

동학 천교도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선생의 생가를 복원한 곳이다. 선생의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성묵(性默), 호는 수운(水雲)이다. 본래의 생가는 선생이 20세 무렵에 화재로 소실되어 그동안은 유허비로써 표지하여 왔다가 경주시에서 동학의 문화유적을 되살리고자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였다.



오류리 등나무 천연기념물

현곡면 오류리에는 등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옛날에는 이곳에 연못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고 네 그루의 등나무가 두 그루씩 엉켜 있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때에는 용의 숲이라는 뜻의 '용림(龍林)'이라 불렸으며, 등나무를 '용등'이라 불렀다고 한다.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따라서

동해권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국의지를 상징하는 문무대왕릉을 비롯해 큰 용이 바다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견대(利見臺), 신문왕이 부왕(父王)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절인 감은사지(感恩寺址) 등이 있는 동해안은 이름난 문화유산권이다.



#양남 주상절리군 #문무대왕릉 #감포깍지길
#기림사 #골굴사 #감은사지



천연기념물 양남 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

양남면 주상절리군 해변에 1.7km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자연이 빚은 걸작품으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한다. 주상절리군 전 구간을 트레킹 할 수 있는 파도소리길이 테마별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서항과 읍천항 사이에 위치한 주상절리 전망대에서는 주상절리에 대한 자료와 함께 동해의 비경과 양남 주상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내 마음을 적시는 동해의 파도소리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읍천항에서 하서항까지 이어진 1.7㎞의 해안 산책로다. 해안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기울어진 주상절리, 위로 솟은 주상절리, 옆으로 누운 주상절리 등 다양한 군상의 주상절리를 볼 수 있다.



감포깍지길

감포읍에서 개설한 스토리텔링 코스인 '감포깍지길'은 대본리에서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걷거나, 내륙 쪽의 볼거리들을 아울러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다. 해안길·읍내골목길·바닷길 등 8개 구간으로 짜여 있다. 도보로는 감포항활어직판장~솟대길감포시장 등으로 이어지는 4구간을 추천할 만하다.



감포항

2020년 개항 100주년을 맞이한 경주 최대의 항구다. 쉴 새 없이 고깃배들이 드나들고, 활어위판장에서는 매일 신선한 생선이 경매로 거래된다. 유서 깊은 항구답게 곳곳에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항구 주변에는 감포의 명물 참가자미회를 파는 횟집이 즐비하다.



용굴

파도와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 조각품, 해식동굴 '용굴'은 전촌항 인근의 해안가에서 만날 수 있다. 용이 드나들었을 법한 통로가 보이는 이 동굴은 '감포깍지길' 제1, 8구간 코스의 경유지이고, 동해안 트레킹코스 '해파랑길' 11구간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경관 포인트다.



문무대왕릉

죽어서 용이 된 왕의 바다무덤

사적

죽은 뒤에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재위 661~681)의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해중릉(海中陵)이다. '대왕암'으로도 불리는 문무대왕릉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 세력을 몰아낸 후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의 호국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문무대왕릉은 바닷가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길이 약 20m의 바위섬으로 이곳에는 인공으로 낸 수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수중못이 있다. 길이 3.6m, 너비 2.9m, 두께 0.9m 크기의 화강암을 얹어놓아 위에서 보면 십자형의 수로를 이루고 있다. 양북면 봉길해안길 41 150, 150-1, 160



대왕암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

이견대 사적

대왕암에 잠든 문무왕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모습을 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갖 파란을 없애고 세상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만파식적'을 얻은 전설로도 유명하다.

이야기 한 토막 : **만파식적의 전설**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 동해안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는데, 죽어서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天神)이 된 김유신이 용을 시켜 대나무를 보낸다. 그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불자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았다고 한다. 왕은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로 삼았다.



기림사

함월산 자락의 천년고찰

기림사(祇林寺)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창건한 절로 조선시대 31 본산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임정사(林井寺)라 불렀으나 원효대사(元曉大師)가 확장하고 기림사라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경내에는 목탑지, 삼층석탑과 건칠보살좌상 등이 있으며 대적광전 등 건물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저자인 김시습을 기리는 매월당 사당이 있으며 감로수와 화정수, 장군수, 명안수, 오탁수의 다섯 가지 물(오종수)로도 유명하다. 054-744-2292 www.kirimsa.net



진리의 빛이 가득한 궁전

기림사대적광전 보물

절의 법당 가운데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는 법당을 대적광전(大寂光殿)이라 한다. 기림사의 대적광전은 신라 선덕여왕 때 처음 지어졌으며 그 뒤 여섯 차례나 다시 지어졌다. 본전다운 웅건함을 갖추었으며 내부는 넓고 화려하다. 대적광전이라 쓴 현판의 글씨는 굵고 힘차며 앞면에는 모두 꽃창살 문을 달았는데 색이 바래 더욱 고색창연하다.



1



2

1 기림사삼층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기림사 응진전(應眞殿) 앞에 있는 탑으로 규모가 작아 앙증맞지만 체감률이 고른 통일신라 후기 혹은 고려 초기의 석탑이다.

2 기림사건칠보살반가상 보물

나무로 골격을 만든 뒤 삼베를 감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른 뒤 속을 파내어 형체를 만들고 옻칠을 한 진귀한 불상(건칠불乾漆佛)이다. 기림사 성보박물관 내에 소장되어 있다.



골굴사

골굴사(骨窟寺)는 이름처럼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석회암에 12개의 석굴이 있으며, 암벽 제일 높은 곳에 돋을새김으로 새긴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기림사 사적기>에 따르면, 함월산의 반대편에 천생 석굴이 있고 굴을 열두 곳으로 구분하여 각기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골굴사는 기림사의 암자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54-744-1689

golgulsa.templestay.com



선무도 공연

선무도는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 방편으로서 관법 수행법을 활용한 불교무예를 뜻한다. 선무도의 수련 방법에는 선요가, 좌관법, 입관법, 행관법이 있다. 선무도의 명맥을 잇고 있는 골굴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선무도 공연을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다.



장항리 서 5층석탑 국보

장항리 절터는 토함산 동쪽의 한 능선이 끝나는 기슭에 있으며 현재 법당터를 중심으로 동서에 탑 2기가 남아있다. 이 중 서탑은 이중기단을 가진 5층 석탑으로 탑의 1층 몸돌 각 면에 한 쌍의 금강역사상을 정교하게 조각해 놓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희귀한 조각수법으로 8세기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골굴암마애여래좌상 보물

불상은 12개의 석굴이 있는 암벽의 제일 상단에 양각으로 새김을 한 통일신라 말기의 마애불상이다. 풍화작용으로 무릎 아래와 대좌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광배의 불꽃무늬와 어깨 등 곳곳에 마멸이 심하다. 높다란 육계와 부피감 있는 얼굴, 눈, 입, 긴 코 등은 9세기 신라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해안 해수욕장

(오류, 나정, 전촌, 봉길, 관성)

동해의 청정 바다와 고운 자갈돌, 해안가와 어우러진 푸른 송림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주변에는 각종 횟집과 편의 시설들이 있으며, 모터보트와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다.



감은사지

용이 된 문무왕이 드나들었다는 절

사적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완성하였다. 문무왕은 해변에 절을 세워 불력(佛力)으로 왜구를 격퇴코자 절의 이름을 '진국사'라 하였으나 절을 완공하기 전에 병이 들어 승려 지의법사에게 "죽은 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언한 뒤 죽었다. 이에 따라 화장 후 유골을 대왕암에서 장사를 지냈으며 신문왕이 부왕의 뜻을 받들어 절을 완공하고 부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감은사(感恩寺)라 명명하였다. 양북면 용당리 55-1 130, 150, 150-1

통일신라 삼층석탑의 기본형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국보

13.4m 높이에 기단 2층, 몸체 3층의 삼층석탑으로 분황사 탑을 제외하면 가장 크며 동서양 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장중하면서도 기운차고 전체적인 비례가 조화를 이루어 안정감을 준다.



여행의 깊이를 더하다

추천 여행지 & 필수정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
추천하는 여행지만 따라가도 다채롭고 감각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향토성 짙은 축제는 물론이고 경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산물은 여행의 하이라이트다.



COURSE 01

당일 코스

당일 불국사 석굴암 황리단길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

COURSE 02

1박 2일 코스

1일차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 황리단길 교촌마을 첨성대 동궁과 월지

2일차 보문단지 석굴암 불국사 양남 주상절리

COURSE 03

2박 3일 코스

1일차 국립경주박물관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

2일차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 황리단길 대릉원 동궁과 월지

3일차 양동마을 포석정 오릉 교촌마을 첨성대

COURSE 0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코스

1일차 불국사 석굴암 신라역사과학관 경주역사유적지구 (황룡사지구)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2일차 경주역사유적지구 (대릉원지구) 양동마을 옥산서원



COURSE 05

두 바퀴로 누비는 자전거 코스

강변 자전거길(약 5.4km)

코스: 강변 공영주차장(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 분황사 → 알천교 → 북천 자전거길 → 형산강 자전거길

서악동 고분군 가는 길(약 5.5km)

코스: 고속버스터미널 → 서천교 → 흥무공원 → 김유신장군묘 → 무열왕릉&서악동 고분군 → 김인문묘 → 서악서원

황룡사 가는 길(약 9.6km)

코스: 대릉원 → 첨성대 → 동궁과 월지 → 국립경주박물관 → 황룡사지&황룡사문화관 → 황복사지 삼층석탑 → 진평왕릉

보문호수 길(약 14.2km)

코스: 서라벌광장 → 물너울공원 → 보문호반길 → 보문정 → 메타세콰이어숲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자전거 대여점은 경주터미널과 경주역 주변, 시내권 관광지, 대릉원 주변, 보문관광단지 일원 등에 있다.

+ 자전거 여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인도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도로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통행량이 많은 차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COURSE 06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드라이브 코스

코스

경주 흥무로 '벚꽃길' (서천교 — 김유신 장군묘)

서천교를 지나 김유신장군묘로 이어지는 길(흥무로)로 양쪽에는 벚나무가 즐비하다. 국토교통부가 '아름다운 한국의 길 100선'에 선정한 곳 중 하나다.

경주 암곡 '벚꽃길' (보문단지 — 무장산 방향)

보문관광단지에서 북쪽 암곡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온다. 억새군락지로 유명한 무장산 가는 길이기도 하다.

경주 풍력발전소 '바람길' (바람의 언덕)

네비게이션 이용 시 '경주 풍력발전소'라고 검색하면 된다. 시내에서 동해로 가는 방향에 있어 경유할 수 있는 동해권 여행 장소가 많다.

감포 '해안길' (31번 국도, 연동항 — 문무대왕릉) *출처 : 경주시 블로그

약 14km 정도 되는 해안도로다. 오류고아라해변, 이견대부터 문무대왕릉 등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추천 경유 여행지

연동항 — 오류고아라해변 — 송대말등대 — 감포항&감포해상공원 — 문무대왕릉 — 감은사지 — 이견대 — 나정고운모래해변 — 전촌항&전촌솔밭해변

산내면 '녹음길' (20번 국도, 건천초등학교 — 화랑의 언덕) *출처 : 경주시 블로그

해안도로와 다른 매력을 가진 산간도로다. 20번 국도를 타면 때 묻지 않은 자연을 즐기며 '화랑의 언덕'으로 갈 수 있다.

추천 경유 여행지

건천 편백숲내음길 — 다봉마을 — 동창천 — 화랑의 언덕



COURSE 07

인생사진을 완성하는 포토존 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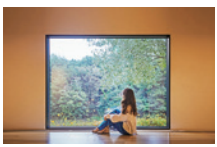
대릉원 '목련나무 앞'

황남대총 뒤쪽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다. 고분과 고분 사이로 보이는 울창한 나무 몇 그루가 훌륭한 배경이 된다. 특히 봄에는 목련꽃이 낭만을 더한다.



첨성대 '핑크뮬리 밭'

매년 가을(10-11월)이면 첨성대 꽃단지 일원이 핑크뮬리(분홍쥐꼬리새)로 가득하다. 핑크빛 세상 속 '나'와 첨성대를 한 컷에 담아볼 수 있다.



솔거미술관 '움직이는 그림'

상설전시실 중 한 곳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이 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앞에서 작품 같은 사진을 남길 수 있다.



해국길 '해국 벽화 포토존'

전촌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벽화 마을이다. 해국 벽화가 곳곳에 그려진 길에는 옛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다.



하동저수지 '해바라기 꽃밭'

여름이 되면 약 2,600여㎡의 하동 들녘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진다. 밭 둘레를 거닐 수 있게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다.



COURSE 08

달빛이 감싸는 밤산책 스팟

대릉원 돌담길

돌담길 양옆으로 벚나무가 심겨 있어 봄이면 벚꽃터널이 이룬다. 돌담길에는 시를 새겨 넣은 패가 걸려있어 문학적 감성도 채울 수 있다.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밤의 모습은 낮과는 다르다.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기 때문에 첨성대의 오묘하고 신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월정교

월정교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졌던 교량으로 조선시대에 유실되었다. 2018년 국내 최대 규모의 목조 교량으로 복원된 후, 강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자태를 뽐내고 있다.

동궁과 월지

경주의 제일가는 야경명소다. 신라 조경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곳은 밤이 되면 아름다운 조명과 경관으로 사람들의 맘을 사로잡는다.

서출지

경주시민들만 안다는 밤산책 명소다. 작은 연못에 정자 하나 있는 것이 다지만, 고즈넉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특유의 매력이다.

감은사지

시내에서 다소 먼 곳에 있지만 두 개의 탑이 만들어내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밤하늘과 석탑을 함께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다.

경주읍성

경주읍성의 복원이 시작되면서 남아 있던 동쪽 성벽을 이어 쌓고 동쪽 성문인 향일문을 지었다. 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마다 운치를 더한다.



COURSE 09

진목정 성지 안내

진목정 성지란?

병인박해 때 순교한 허인백(야고버), 김종륜(루카), 이양등(베드로)과 관련된 장소다. 세명의 순교자와 그 가족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한 범굴부터 순교자 3명이 합장된 묘까지 둘러볼 수 있다.

진목정 성지 스팟

범굴 - 피정의 집 - 단석골 쉼터 - 순교자묘소 - 순교자기념성당 - 진목공소

운영안내

운영시간 : 9:30 ~ 18:00 (연중무휴) / 주소 : 산내면 수의길 192
홈페이지 : jinmokjeong.or.kr

COURSE 10

경주 시티투어 안내

천마관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으로 시티투어 전용 버스로 이동한다. 모든 투어에 전문해설사가 동행한다. 야간코스는 3시간, 주간투어는 7~8시간 정도 소요된다.

동해안투어

경주전통명주전시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 양남주상절리 - 골굴사 - 괘릉

신라역사투어

김유신장군묘 - 국립경주박물관 - 황룡사역사문화관 - 불국사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업체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업체사정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예약 및 탑승시간 조회 www.cmtour.co.kr / 고객센터 1666-8788

경주 실내 관광지

미디어 아트



플래시백 : 계림

신라의 건국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역사와 신화·설화를 첨단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몰입형 전시관으로, 빛과 공간, 사운드를 통해 신라의 서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천북남로 14 0507-1301-0974



정글미디어파크

정글과 심해, 고대 문명 등 다양한 테마를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색다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문로 465-67 지하 1층 1522-5775



코스믹리조트

우주와 휴양을 주제로 한 체험형 미디어 테마파크로,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콘텐츠, 몰입형 공간 연출을 통해 다양한 감각으로 특별한 우주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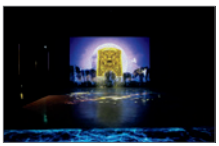
천북남로 176 (손곡동) 054-777-7007



라원

디지털 전시관과 야외정원으로 구성된 신라 테마 복합문화공간으로, 신라 8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자연 속 미디어 연출을 통해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체험형 정원이다.

경감로 233 054-742-5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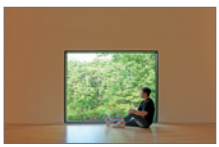


엑스포 공원 – 찬란한 빛의 신라

경주엑스포대공원 천마의 궁전에서 만나는 체험형 미디어아트로, 첨성대·석굴암·불국사 등 경주의 유산을 몽환적 영상과 인터랙티브 연출로 구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이다.

경감로 614 054-748-3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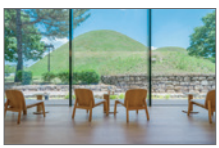
미술관



솔거 미술관

한국화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 기증으로 조성된 공립미술관으로, 승효상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 자연과 공간이 어우러진 전시 환경 속에서 상설·기획전시와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감로 614 054-740-3990



오아르 미술관

노서동 고분군을 조망하는 사립 미술관으로,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한 전시·카페·전망 공간에서 김문호 컬렉터의 소장품과 함께 경주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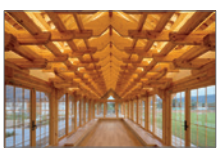
금성로 260-6 054-705-5501



우양 미술관

경주의 대표 현대미술관으로, 국내외 현대미술 전시와 소장품을 통해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천년 신라의 도시 경주와 현대미술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문로 484-7 054-745-7075



더안 미술관

황리단길 인근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의원·카페·미술관을 '치유의 집'으로 구성해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을 결합한 독창적인 목조건축 속에서 전시와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강변로 60 0507-1490-7227



플레이스 C

경주 오릉 인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옥과 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국내외 전시와 야외정원, 카페와 레스토랑을 함께 즐기며 예술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 힐링 공간이다.

국당2길 2 054-775-5500

경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이사금

이사금은 경주의 고품질 우수 농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사용한 임금의 칭호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리나라의 임금 농수산물, 즉 대표적 농수산물이 되겠다는 의지로 질높은 농수산물을 생산한다. 주요 품목으로 쌀, 사과, 배, 단감, 참전복, 돌미역, 오징어, 가리비 등이 있다.



경주의 대표 한우브랜드 천년한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관리체계를 갖추어 우수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한 한우로부터 우수한 고기가 생산된다는 이념으로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며, 천년한우의 모든 제품은 쇠고기 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요무형 문화유산(향토술담기) 교동법주

교동법주는 조선시대 숙종 때에 사옹원(임금의 식사와 궁중음식을 관리하던 관서)에서 참봉을 지냈던 최국선이 낙향하여 사가에서 처음 빚은 가양주이다. 350년의 명맥을 이어온 경주 최씨가문 비주(秘酒)로 감미로운 곡향과 깊은 맛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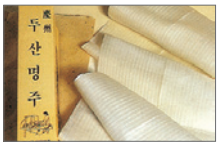
우리 쌀 100%로 빚은 명주 경주법주

경주법주는 귀족과 화랑이 즐겨 마시던 술이다. 빚는 방법과 음주법도 엄격한 법도를 따랐기 때문에 '법주'라 불렸다. 1972년, 한국을 대표하는 국주의 필요성이 제기돼 경주법주의 예전 제조 비법을 복원해 발전시켰다.



달빛처럼 은은하지만 강한 맛 신라주

신라주는 맑은 향과 한 모금 머금었을 때의 톡 쏘는 맛이 조화를 이루는 술이다. 신라주는 강한 맛을 내는 증류주로서 생선회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와도 잘 어울린다.



전국 유일의 손명주 생산 두산명주

감은사지 인근에 전국 유일의 손명주 생산마을인 '두산명주마을'이 있다. 두산명주는 대에 대를 이어 노하우를 보유한 마을 주민들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100% 수작업으로 짜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1939년부터 황남동에서 시작된 명물 황남빵

1939년부터 황남동에서 만들어 파는 빵이라 하여 이름도 황남빵이다. 1994년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되었으며, 경상북도 명품 제2호이다. 대릉원, 경주역, 경주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찰보리와 통귀리를 주원료로 만든 빵 찰보리빵

경주에서 생산되는 찰보리와 통귀리를 주원료로 만들어 쫀득쫀득하고 소화흡수가 잘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부드럽고 카스테라 같은 느낌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건강 간식이다.





경주 대릉원돌담길 축제

시기 : 매년 벚꽃 개화 시기(대개 4월 초)
장소 : 동부사적지구(첨성대, 계림 일원) 및 보문관광단지
행사 : 개막공연, 벚꽃버스킹, 벚꽃운동회 등
경주문화재단 054-748-7721

신라문화제

시기 : 매년 10월경
장소 : 경주 시가지 일원
행사 : 메인이벤트, 주제공연, 부대행사, 체험 및 이벤트 등
경주시 문화예술과 054-779-6073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시기 : 매년 4월 초
장소 : 경주 보문관광단지 및 시내일원
종목 : 하프코스, 10km, 5km
참가인원 : 15,000명
경주시체육회 054-772-4993

경주 윈터포차라이트

시기 : 매년 11월경
장소 : 경주문화관 1918(구.경주역)광장
행사 : 포장마차 테마, 라이브음악, 댄스, 참여형 이벤트 등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054-779-6078

봉황대뮤직스퀘어

시기 : 매년 5월 ~ 8월
장소 : 경주 봉황대 앞 광장
행사 : 대중음악콘서트, 플리마켓, 체험 및 이벤트 부스 등
경주문화재단 054-777-6303

제야의 종 타종식

시기 : 매년 12월 31일
장소 : 신라대종공원(태종로 767)
행사 : 500인 경주시민대합창, 신라대종 타종, 각종 부대행사
경주문화재단 054-748-7721

경주 국가유산야행

시기 : 매년 9월경
장소 : 경주교촌마을, 월정교 일원
행사 : 버스킹, 전시 및 체험, 드론쇼, 푸드트럭, 샌드아트 등
경주시 문화유산과 054-779-6108

해룡일출축제

시기 : 매년 12월 31일~1월 1일
장소 : 봉길대왕암해변
행사 : 새해 카운트다운, 각종 공연, 소원등날리기 등
경주시 바로콜 054-779-8585

*현지 사정에 따라 시기와 장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을 사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안내처 & 숙박

주요 안내처 정보

관광안내소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054)
터미널관광안내소	태종로685번길 6 (시외버스 터미널 옆 광장)	772-9289
불국사관광안내소	진현로2길 61-3 (불국사 주차장)	746-4747
관광약자센터	태종로767(신라대종 체험관 옆)	777-1330
경주역관광안내소	건천읍 경주역로 80 (경주역 맞이방내)	771-1336

숙박

호텔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054)
힐튼경주호텔	보문로 484-7	745-7788
라한셀렉트 경주	보문로 338	748-2233
경주코오롱호텔	불국로 289-17	746-9001
코모도호텔경주	보문로 422	745-7701
The-K 경주호텔	엑스포로 45	745-8100
키녹 (반려견동반숙소)	보문로 280-12	778-7301
경주조선온천호텔	보문로 407	748-5858
스위스로젠 관광호텔	보문로 465-37	748-4848
라궁호텔	엑스포로 55-12	776-0071
경주지지호텔	태종로699번길 3	701-0090
소노캄경주	보문로 402-12	1588-4888

*이외의 호텔 예약 및 숙소 안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를 참조하시거나 대한숙박업협회054-749-6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054)
경주 오류캠핑장	감포로 382-7	750-8600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	동해안로 1976	070-4284-0140
토함산자연휴양림	불국로 1208-45	750-8700
경주시 화랑마을	석현로 123	760-2444

유스호스텔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054)
계림 유스호스텔	불국신택지1길 31	775-2117
동궁 유스호스텔	진현로2길 21	748-7400
하운드 유스호스텔	불국신택지4길 34	746-6000
신라 유스호스텔	영불로 256	748-7333
리멤버 유스호스텔	영불로 209	776-7031
황룡 유스호스텔	불국신택지6길 9	772-6666

리조트 · 콘도미니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054)
한화리조트 경주	보문로 182-27	777-8900
켄싱턴리조트 경주	보문로 182-29	748-8400
일성경주 보문콘도	보문로 365	744-1199
한국콘도 경주	보문로 353	777-2780
소노캄 경주	보문로 402-12	1588-4888
마우나 오션콘도	양남면 동남로 982	1600-8668
강동리조트	보불로 391	1588-0776

* 현지사정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경주시 18개소의 유적지에서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약방법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인 경우)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www.gyeongju.go.kr/tour) ▶ 신청하기 메뉴 ▶ 문화관광해설신청 페이지
예약 확인·변경 문의 : 070-7718-0333

무료 문화관광 해설서비스 가능 사적지

사적지명	해설사 배치	해설사 근무시간	해설안내시간
대릉원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10:00 ~ 17:00 (석굴암 10:20 ~ 17:00)	매시간 1회 원칙, 예약자 우선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불국사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일요일 배치제외 (불국사 구품연지회에서 해설)		
석굴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양동마을	영어, 일어, 중국어 ※ 한국어 해설은 양동마을 자체 실시 문의처(054-761-2630)		
분황사	한국어, 외국어		
첨성대	한국어, 외국어	주간 10:00 ~ 17:00	
동궁과 월지 (구 임해전지, 안압지)	한국어, 외국어	야간 17:00 ~ 22:00	
옥산서원	한국어		
김유신묘	한국어		
무열왕릉	한국어		
포석정지	한국어	10:00 ~ 17:00 (감은사지, 옥산서원 10:20 ~ 17:00)	
원성왕릉(구 괘릉)	한국어		
오릉	한국어		
감은사지	한국어		
신라를 빛낸 인물관 (동리목월문학관 별관)	한국어(월요일 휴관)		
향교	한국어		
통일전	한국어	토,일 10:00~15:00	
경주읍성	한국어	10:00 ~ 17:00	

관광지도 신청 & 스탬프투어 & 신라대종 타종체험

관광지도신청

관광지도는 경주시청 및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 배부하고 있다. 필요시 인터넷 신청으로 미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1인 1부씩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 그 외의 경우 착불로 발송된다.

관광지도 신청방법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www.gyeongju.go.kr/tour) ▶ 신청하기 메뉴 ▶ 관광지도신청 페이지
054-779-6832
*만 19세 이상만 안내지도 신청 가능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 명소에서 모든 스탬프 날인을 받으신 관람객에게 '경주굿즈세트'를 기념품으로 무료 발송하고 있다.
*완료 기념품은 내부 사정에 따라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명소 (총 16곳)

김유신묘, 대릉원(천마총), 오릉, 첨성대, 동궁과 월지, 교촌마을(향교), 분황사, 무열왕릉, 포석정지, 원성왕릉, 불국사, 동리목월문학관, 석굴암, 감은사지, 옥산서원, 양동마을
*스탬프 날인은 문화관광해설사부스에서 해설사 근무시간 내 가능

스탬프 투어 기념품 신청방법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www.gyeongju.go.kr/tour) ▶ 신청하기 메뉴 ▶ 스탬프투어 완료 기념품 신청 페이지

신라대종 타종체험



국보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재현한 신라대종을 직접 쳐볼 수 있다. 매일 낮 12시~오후 5시 사이 매시 정각에 체험관에 비치된 신라복을 착용하고 한 팀당 최대 3번 종을 칠 수 있다.

신라대종 타종체험 신청방법

경주문화관광 홈페이지(www.gyeongju.go.kr/tour) ▶ 신청하기 메뉴 ▶ 신라대종 타종체험 신청 페이지
신라대종 타종체험관 : 054-741-2594
태종로 767

관광요금표

(단위 :원)

사적지	어른(만19~만64)		청소년군인(만13~만18)		어린이(만7~만12)		주차료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소형	대형
대릉원	무료						2,000	4,000
천마총	3,000	2,400	2,000	1,600	1,000	800	학생단체:3,000 2시간 초과 후 1시간 마다 50% 요금추가 장애인/국가유공자:50%할인 경차,친환경차:50%할인	
동궁과 월지	3,000	2,400	2,000	1,600	1,000	800	무료	
첨성대	무료						대릉원주차장이용	
오릉	2,000	1,600	1,000	800	500	400	1,000	2,000
							장애인/국가유공자:50%할인 경차,친환경차:50%할인	
포석정	2,000	1,600	1,000	800	500	400	2,000	4,000
							장애인/국가유공자:50%할인 경차,친환경차:50%할인	
김유신장군묘	2,000	1,600	1,000	800	500	400	무료	
무열왕릉	2,000	1,600	1,000	800	500	400		
통일전	무료						무료	
분황사								
불국사							1,000	2,000
석굴암							2,000	4,000
감은사지							무료	
문무대왕릉								
국립경주박물관	무료(단, 유료특별전시는 제외)						무료	
신라역사과학관	5,000	4,000	3,500	3,000	3,500	3,000		
양동마을	4,000	3,400	2,000	1,700	1,500	1,200		
옥산서원	무료							
원성왕릉(괘릉)								
황룡사 역사문화관	3,000	2,000	2,000	1,500	1,500	1,000		

※ 단체 30인 이상(단, 불국사·석굴암·기림사는 단체 20인 이상, 단 기림사는 어른 적용 안됨.)

(2025년 8월 1일 기준)

동궁원 입장료

(단위 :원)

구분		어른(만19~64세)	청소년(중·고등학교)	어린이(초등학교)	경주시민
식물원	개인	5,000	4,000	3,000	2,000
	단체	4,000	3,000	2,000	2,000
버드 파크	개인	20,000	20,000	15,000 (24개월 이상 ~ 초등학생)	13,000
	단체	15,000	15,000	10,000 (24개월 이상 ~ 초등학생)	10,000

※ 식물원 입장 시 군경(제복 착용자)은 청소년 요금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화유산 목록

불국사권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불국사	사적 (95년 세계유산등재)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불국사 다보탑	국보
불국사 연화교 및 칠보교	국보
불국사 청운교 및 백운교	국보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국보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국보
불국사 대웅전	보물
불국사 가구식 석축	보물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벽화	보물
석굴암 석굴	국보 (95년 세계유산등재)
구정동 방형분	사적
원성왕릉	사적
원성왕릉 석상 및 석주일괄	보물
영지 석불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원원사지	사적

남산권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나정	사적
남간사지당간지주	보물
양산재	비지정 문화유산
오릉	사적
창림사지 귀부	비지정 문화유산
포석정지	사적
창림사지 삼층석탑	비지정 문화유산
배동 삼릉	사적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보물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남산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보물
서출지	사적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보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국보
남산 불곡 마애여래좌상	보물
남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남산 탑곡마애불상군	보물
사천왕사지	사적
능지탑지	경상북도 기념물
신문왕릉	사적
황복사지 삼층석탑	국보
선덕여왕릉	사적
남산 일원	사적
남산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보물
남산 용장사곡 삼층석탑	보물
남산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보물

경주시내권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성덕대왕신종	국보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국보
석빙고	보물
첨성대	국보
동궁과 월지	사적
계림로 보검	보물
천마총	사적
대릉원 일원	사적
동부사적지대	사적
계림	사적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보물
백률사 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유산 자료
분황사 모전 석탑	국보
향교 대성전	보물

서·북부권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태종무열왕릉비	국보
태종무열왕릉	사적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효현동 삼층석탑	보물
김인문묘	경상북도 기념물
김양묘	경상북도 기념물
김유신묘	사적
진흥왕릉	사적
법흥왕릉	사적
서악동 삼층석탑	보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나원리 오층석탑	국보
오류리 등나무	천연기념물
양동마을	국가민속 문화유산 (2010년 세계유산등재)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국보
금척리 고분군	사적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국보
옥산서원	사적(2019년 세계유산등재)
독락당	보물(2019년 세계유산등재)
흥덕왕릉	사적

동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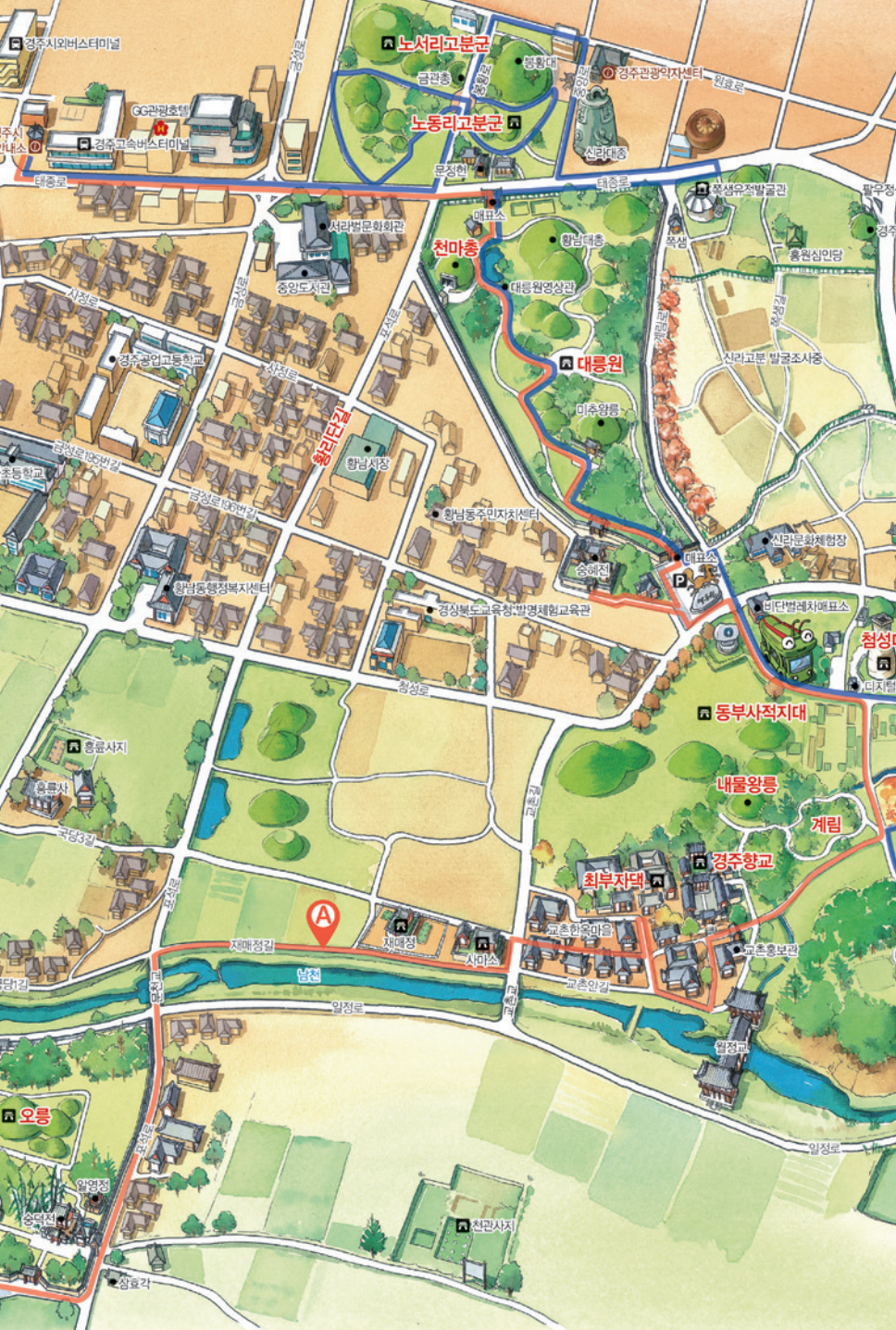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기림사 대적광전	보물
기림사 건칠보살반가상	보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물
감은사지	사적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국보
문무대왕릉	사적
장항리 서 오층석탑	국보
이견대	사적
양남 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처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제작·인쇄	디자인글꼴 Tel. 051-636-1210
사진	경주시, 디자인글꼴
감수	경주시

본지에 게재되어 있는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후의 관광요금, 운영시간, 운영내용 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이 책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는 무단복사,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경주시


노서리고분군
노동리고분군
봉황대
금관총
문정현
경주관광안내센터
원효로
신라대종
경주시외버스터미널
GG관광호텔
경주고속버스터미널
태종로
서라벌문화회관
중앙도서관
매표소
천마총
황남대총
대릉원원영상관
대릉원
미추왕릉
쪽샘
쪽샘유적발굴관
홍원심인당
신라고분 발굴조사중
황남시장
황남동주민자치센터
황남동행정복지센터
경주공업고등학교
숭해전
신관문화체험장
비단벌레차매표소
동부사적지대
내물왕릉
계림
경주향교
최부자댁
흥륜사지
흥륜사
재매정
사마소
교촌한옥마을
교촌홍보관
남천
월정교
오릉
일영정
숭덕전
삼효각
천관사지
재매정길
교촌안길
월정로
황남1길
황남2길
황남3길
황남4길
황남5길
황남6길
황남7길
황남8길
황남9길
황남10길
황남11길
황남12길
황남13길
황남14길
황남15길
황남16길
황남17길
황남18길
황남19길
황남20길
황남21길
황남22길
황남23길
황남24길
황남25길
황남26길
황남27길
황남28길
황남29길
황남30길
황남31길
황남32길
황남33길
황남34길
황남35길
황남36길
황남37길
황남38길
황남39길
황남40길
황남41길
황남42길
황남43길
황남44길
황남45길
황남46길
황남47길
황남48길
황남49길
황남50길
황남51길
황남52길
황남53길
황남54길
황남55길
황남56길
황남57길
황남58길
황남59길
황남60길
황남61길
황남62길
황남63길
황남64길
황남65길
황남66길
황남67길
황남68길
황남69길
황남70길
황남71길
황남72길
황남73길
황남74길
황남75길
황남76길
황남77길
황남78길
황남79길
황남80길
황남81길
황남82길
황남83길
황남84길
황남85길
황남86길
황남87길
황남88길
황남89길
황남90길
황남91길
황남92길
황남93길
황남94길
황남95길
황남96길
황남97길
황남98길
황남99길
황남100길
황남101길
황남102길
황남103길
황남104길
황남105길
황남106길
황남107길
황남108길
황남109길
황남110길
황남111길
황남112길
황남113길
황남114길
황남115길
황남116길
황남117길
황남118길
황남119길
황남120길
황남121길
황남122길
황남123길
황남124길
황남125길
황남126길
황남127길
황남128길
황남129길
황남130길
황남131길
황남132길
황남133길
황남134길
황남135길
황남136길
황남137길
황남138길
황남139길
황남140길
황남141길
황남142길
황남143길
황남144길
황남145길
황남146길
황남147길
황남148길
황남149길
황남150길
황남151길
황남152길
황남153길
황남154길
황남155길
황남156길
황남157길
황남158길
황남159길
황남160길
황남161길
황남162길
황남163길
황남164길
황남165길
황남166길
황남167길
황남168길
황남169길
황남170길
황남171길
황남172길
황남173길
황남174길
황남175길
황남176길
황남177길
황남178길
황남179길
황남180길
황남181길
황남182길
황남183길
황남184길
황남185길
황남186길
황남187길
황남188길
황남189길
황남190길
황남191길
황남192길
황남193길
황남194길
황남195길
황남196길
황남197길
황남198길
황남199길
황남200길
황남201길
황남202길
황남203길
황남204길
황남205길
황남206길
황남207길
황남208길
황남209길
황남210길
황남211길
황남212길
황남213길
황남214길
황남215길
황남216길
황남217길
황남218길
황남219길
황남220길
황남221길
황남222길
황남223길
황남224길
황남225길
황남226길
황남227길
황남228길
황남229길
황남230길
황남231길
황남232길
황남233길
황남234길
황남235길
황남236길
황남237길
황남238길
황남239길
황남240길
황남241길
황남242길
황남243길
황남244길
황남245길
황남246길
황남247길
황남248길
황남249길
황남250길
황남251길
황남252길
황남253길
황남254길
황남255길
황남256길
황남257길
황남258길
황남259길
황남260길
황남261길
황남262길
황남263길
황남264길
황남265길
황남266길
황남267길
황남268길
황남269길
황남270길
황남271길
황남272길
황남273길
황남274길
황남275길
황남276길
황남277길
황남278길
황남279길
황남280길
황남281길
황남282길
황남283길
황남284길
황남285길
황남286길
황남287길
황남288길
황남289길
황남290길
황남291길
황남292길
황남293길
황남294길
황남295길
황남296길
황남297길
황남298길
황남299길
황남300길
황남301길
황남302길
황남303길
황남304길
황남305길
황남306길
황남307길
황남308길
황남309길
황남310길
황남311길
황남312길
황남313길
황남314길
황남315길
황남316길
황남317길
황남318길
황남319길
황남320길
황남321길
황남322길
황남323길
황남324길
황남325길
황남326길
황남327길
황남328길
황남329길
황남330길
황남331길
황남332길
황남333길
황남334길
황남335길
황남336길
황남337길
황남338길
황남339길
황남340길
황남341길
황남342길
황남343길
황남344길
황남345길
황남346길
황남347길
황남348길
황남349길
황남350길
황남351길
황남352길
황남353길
황남354길
황남355길
황남356길
황남357길
황남358길
황남359길
황남360길
황남361길
황남362길
황남363길
황남364길
황남365길
황남366길
황남367길
황남368길
황남369길
황남370길
황남371길
황남372길
황남373길
황남374길
황남375길
황남376길
황남377길
황남378길
황남379길
황남380길
황남381길
황남382길
황남383길
황남384길
황남385길
황남386길
황남387길
황남388길
황남389길
황남390길
황남391길
황남392길
황남393길
황남394길
황남395길
황남396길
황남397길
황남398길
황남399길
황남400길
황남401길
황남402길
황남403길
황남404길
황남405길
황남406길
황남407길
황남408길
황남409길
황남410길
황남411길
황남412길
황남413길
황남414길
황남415길
황남416길
황남417길
황남418길
황남419길
황남420길
황남421길
황남422길
황남423길
황남424길
황남425길
황남426길
황남427길
황남428길
황남429길
황남430길
황남431길
황남432길
황남433길
황남434길
황남435길
황남436길
황남437길
황남438길
황남439길
황남440길
황남441길
황남442길
황남443길
황남444길
황남445길
황남446길
황남447길
황남448길
황남449길
황남450길
황남451길
황남452길
황남453길
황남454길
황남455길
황남456길
황남457길
황남458길
황남459길
황남460길
황남461길
황남462길
황남463길
황남464길
황남465길
황남466길
황남467길
황남468길
황남469길
황남470길
황남471길
황남472길
황남473길
황남474길
황남475길
황남476길
황남477길
황남478길
황남479길
황남480길
황남481길
황남482길
황남483길
황남484길
황남485길
황남486길
황남487길
황남488길
황남489길
황남490길
황남491길
황남492길
황남493길
황남494길
황남495길
황남496길
황남497길
황남498길
황남499길
황남500길
황남501길
황남502길
황남503길
황남504길
황남505길
황남506길
황남507길
황남508길
황남509길
황남510길
황남511길
황남512길
황남513길
황남514길
황남515길
황남516길
황남517길
황남518길
황남519길
황남520길
황남521길
황남522길
황남523길
황남524길
황남525길
황남526길
황남527길
황남528길
황남529길
황남530길
황남531길
황남532길
황남533길
황남534길
황남535길
황남536길
황남537길
황남538길
황남539길
황남540길
황남541길
황남542길
황남543길
황남544길
황남545길
황남546길
황남547길
황남548길
황남549길
황남550길
황남551길
황남552길
황남553길
황남554길
황남555길
황남556길
황남557길
황남558길
황남559길
황남560길
황남561길
황남562길
황남563길
황남564길
황남565길
황남566길
황남567길
황남568길
황남569길
황남570길
황남571길
황남572길
황남573길
황남574길
황남575길
황남576길
황남577길
황남578길
황남579길
황남580길
황남581길
황남582길
황남583길
황남584길
황남585길
황남586길
황남587길
황남588길
황남589길
황남590길
황남591길
황남592길
황남593길
황남594길
황남595길
황남596길
황남597길
황남598길
황남599길
황남600길
황남601길
황남602길
황남603길
황남604길
황남605길
황남606길
황남607길
황남608길
황남609길
황남610길
황남611길
황남612길
황남613길
황남614길
황남615길
황남616길
황남617길
황남618길
황남619길
황남620길
황남621길
황남622길
황남623길
황남624길
황남625길
황남626길
황남627길
황남628길
황남629길
황남630길
황남631길
황남632길
황남633길
황남634길
황남635길
황남636길
황남637길
황남638길
황남639길
황남640길
황남641길
황남642길
황남643길
황남644길
황남645길
황남646길
황남647길
황남648길
황남649길
황남650길
황남651길
황남652길
황남653길
황남654길
황남655길
황남656길
황남657길
황남658길
황남659길
황남660길
황남661길
황남662길
황남663길
황남664길
황남665길
황남666길
황남667길
황남668길
황남669길
황남670길
황남671길
황남672길
황남673길
황남674길
황남675길
황남676길
황남677길
황남678길
황남679길
황남680길
황남681길
황남682길
황남683길
황남684길
황남685길
황남686길
황남687길
황남688길
황남689길
황남690길
황남691길
황남692길
황남693길
황남694길
황남695길
황남696길
황남697길
황남698길
황남699길
황남700길
황남701길
황남702길
황남703길
황남704길
황남705길
황남706길
황남707길
황남708길
황남709길
황남710길
황남711길
황남712길
황남713길
황남714길
황남715길
황남716길
황남717길
황남718길
황남719길
황남720길
황남721길
황남722길
황남723길
황남724길
황남725길
황남726길
황남727길
황남728길
황남729길
황남730길
황남731길
황남732길
황남733길
황남734길
황남735길
황남736길
황남737길
황남738길
황남739길
황남740길
황남741길
황남742길
황남743길
황남744길
황남745길
황남746길
황남747길
황남748길
황남749길
황남750길
황남751길
황남752길
황남753길
황남754길
황남755길
황남756길
황남757길
황남758길
황남759길
황남760길
황남761길
황남762길
황남763길
황남764길
황남765길
황남766길
황남767길
황남768길
황남769길
황남770길
황남771길
황남772길
황남773길
황남774길
황남775길
황남776길
황남777길
황남778길
황남779길
황남780길
황남781길
황남782길
황남783길
황남784길
황남785길
황남786길
황남787길
황남788길
황남789길
황남790길
황남791길
황남792길
황남793길
황남794길
황남795길
황남796길
황남797길
황남798길
황남799길
황남800길
황남801길
황남802길
황남803길
황남804길
황남805길
황남806길
황남807길
황남808길
황남809길
황남810길
황남811길
황남812길
황남813길
황남814길
황남815길
황남816길
황남817길
황남818길
황남819길
황남820길
황남821길
황남822길
황남823길
황남824길
황남825길
황남826길
황남827길
황남828길
황남829길
황남830길
황남831길
황남832길
황남833길
황남834길
황남835길
황남836길
황남837길
황남838길
황남839길
황남840길
황남841길
황남842길
황남843길
황남844길
황남845길
황남846길
황남847길
황남848길
황남849길
황남850길
황남851길
황남852길
황남853길
황남854길
황남855길
황남856길
황남857길
황남858길
황남859길
황남860길
황남861길
황남862길
황남863길
황남864길
황남865길
황남866길
황남867길
황남868길
황남869길
황남870길
황남871길
황남872길
황남873길
황남874길
황남875길
황남876길
황남877길
황남878길
황남879길
황남880길
황남881길
황남882길
황남883길
황남884길
황남885길
황남886길
황남887길
황남888길
황남889길
황남890길
황남891길
황남892길
황남893길
황남894길
황남895길
황남896길
황남897길
황남898길
황남899길
황남900길
황남901길
황남902길
황남903길
황남904길
황남905길
황남906길
황남907길
황남908길
황남909길
황남910길
황남911길
황남912길
황남913길
황남914길
황남915길
황남916길
황남917길
황남918길
황남919길
황남920길
황남921길
황남922길
황남923길
황남924길
황남925길
황남926길
황남927길
황남928길
황남929길
황남930길
황남931길
황남932길
황남933길
황남934길
황남935길
황남936길
황남937길
황남938길
황남939길
황남940길
황남941길
황남942길
황남943길
황남944길
황남945길
황남946길
황남947길
황남948길
황남949길
황남950길
황남951길
황남952길
황남953길
황남954길
황남955길
황남956길
황남957길
황남958길
황남959길
황남960길
황남961길
황남962길
황남963길
황남964길
황남965길
황남966길
황남967길
황남968길
황남969길
황남970길
황남971길
황남972길
황남973길
황남974길
황남975길
황남976길
황남977길
황남978길
황남979길
황남980길
황남981길
황남982길
황남983길
황남984길
황남985길
황남986길
황남987길
황남988길
황남989길
황남990길
황남991길
황남992길
황남993길
황남994길
황남995길
황남996길
황남997길
황남998길
황남999길
황남1000길


경주대릉원
일원
팔우정삼거리
경주황오리고분군
경주인왕리고분군
원효로
선덕여자중학교
선덕여자고등학교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추진단
원성동행정복지센터
세계물포럼기념 벽화거리
첨성로
첨성대
야생화단지
디지털첨성대
유채꽃단지
선덕네거리
연꽃단지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안압지)
황룡사남문길
신라왕궁영상관
월성해자
석빙고
매표소
영상관
월성
발굴조사중
남천
박물관네거리
월성교
성덕대왕신종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역사관
특별전시관
월지관
미술관
고선사지삼층석탑
인용사지
월정로
월성로
첨성로
원화로
황룡사 목탑지 →